

제 04편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제7장 도시공간구조

제8장 생활권 설정 및 생활권별 발전구상



제7장

도시공간구조

- ① 도시공간구조 진단
- ② 도시공간구조 개편방향
- ③ 도시공간구조 구상

제7장 도시공간구조

1 도시공간구조 진단

1. 도시공간구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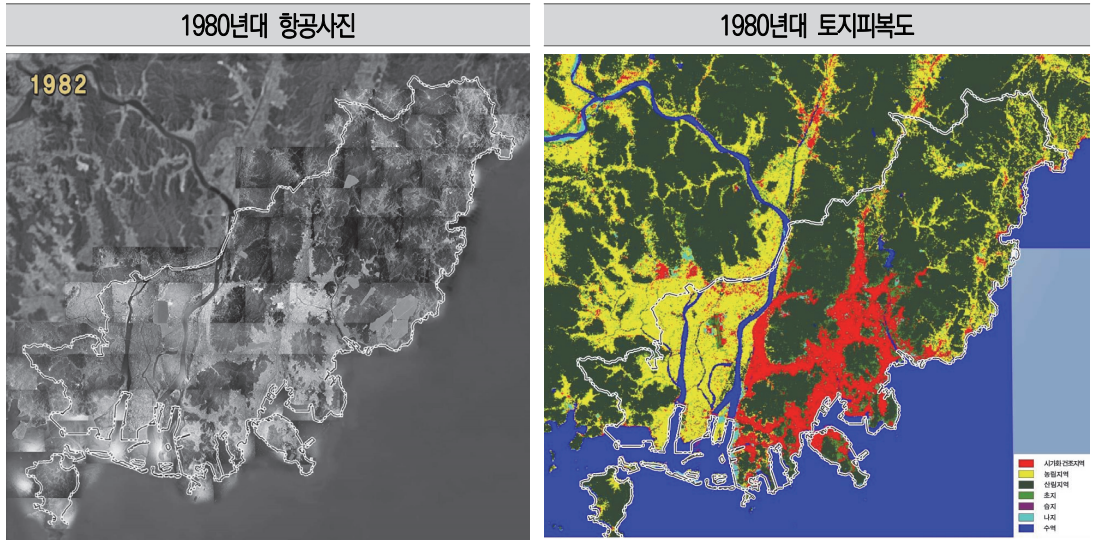
가. 도시성장과정

1980년대 : 원도심 시가지 위주의 도시 성장기

- 1980년대는 중부산권의 현재의 원도심을 중심으로 기존 시가지의 발달과 확산 시기
 - 현재의 원도심과 기존 주거지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발달하고 사상구 일원으로 도시화 진행
 - 서부산권은 대저 및 공항주변으로 부분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나 동부산권은 미개발지가 대부분

7장

[그림 7-1] 도시성장과정(198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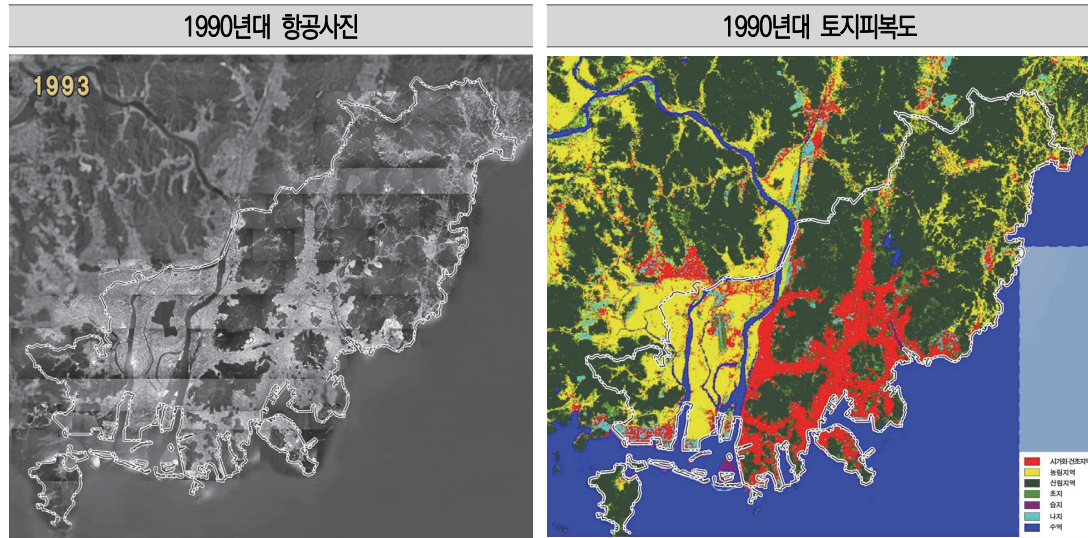
※ 영상사진 : 부산연구원 영상자료, 1982년 항공사진
 ※ 토지피복도 : 환경공간정보서비스(1980년대 말 토지피복 대분류 현황)

1990년대 : 서부산 개발의 착수와 동부산권의 시가지 확산

- 1990년대는 중부산권의 기존 원도심의 과밀로 인한 도시화 확산이 진행되는 시점
 - 기존 도심 및 시가지 과밀로 인한 서부산권 및 동부산 개발 확산 추세
 - 서부산권에 명지녹산산업단지 및 기존 공항 및 대저 일원 개발
 - 동부산권은 정관신도시를 중심으로 개발 확산

04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그림 7-2] 도시성장과정(199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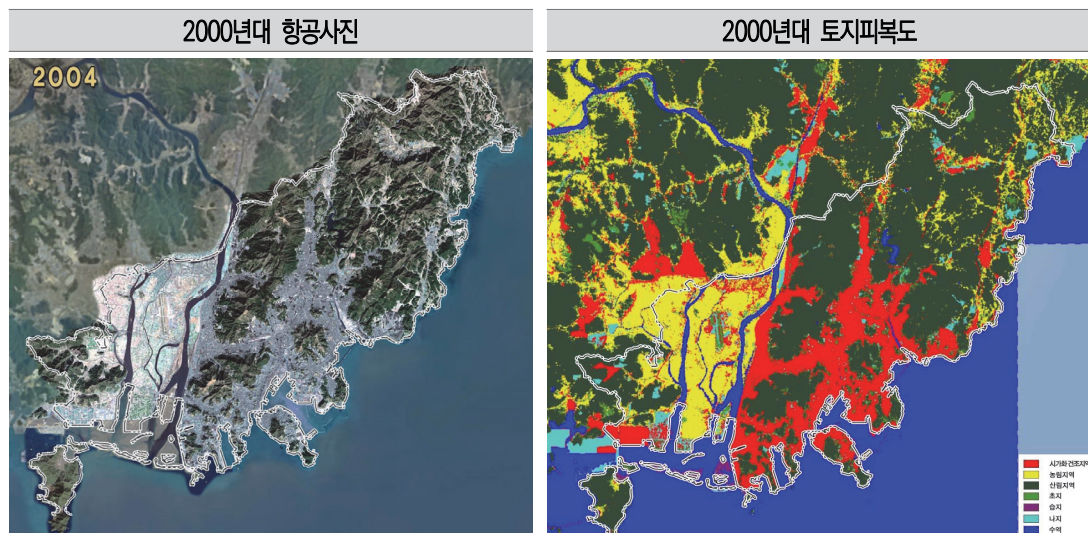


※ 영상사진 : 부산연구원 영상자료, 1993년 항공사진
 ※ 토지피복도 : 환경공간정보서비스(1990년대 말 토지피복 대분류 현황)

■ 2000년대 : 서부산권과 동부산권으로의 시가지 확장 가속

- 2000년대에 들어 서부산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동부산권의 개발로 도시 확장 가속
 - 기존 도심 및 시가지의 과밀·포화로 서부산권 및 동부산권 개발 가속화 추세
 - 서부산권 산업단지 조성 및 동부산권 택지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시가지 평면적 확산 지속

[그림 7-3] 도시성장과정(200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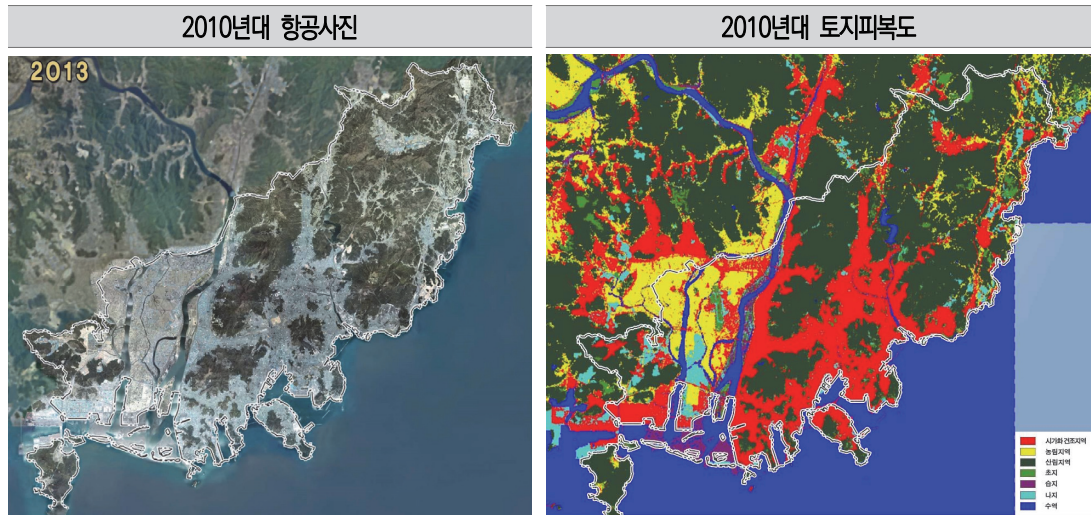


※ 영상사진 : 부산연구원 영상자료, 2004년 항공사진
 ※ 토지피복도 : 환경공간정보서비스(2000년대 말 토지피복 대분류 현황)

■ 2010년대 : 서부산권의 신규 개발 집중으로 시가지 확산의 불균형 발생

- 2010년대에 들어 중부산의 기존 시가지와 서부산의 신규 시가지로 불균형 발전 시작
 - 에코델타시티 착수 등 서부산 신규개발 집중으로 기존 원도심과 함께 불균형 발전의 단초
 - 동부산권은 관련 규제 등으로 상대적으로 도시성장 지연

[그림 7-4] 도시성장과정(201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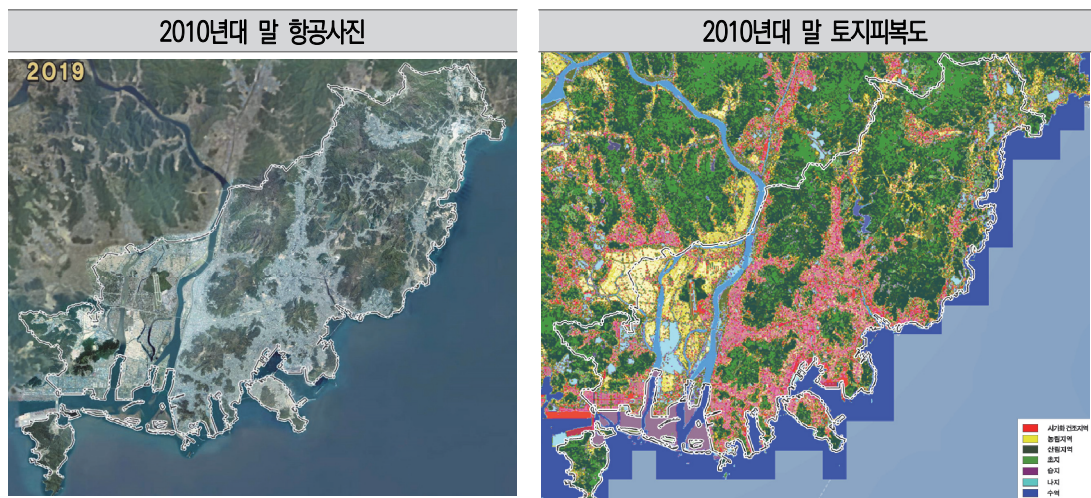


※ 영상사진 : 부산연구원 영상자료, 2013년 항공사진
 ※ 토지피복도 : 환경공간정보서비스(2010년대 말 토지피복 대분류 현황)

■ 현재(2010년대 말) :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심화 및 다핵형 도시공간구조 확립

- 현 시점은 다핵형 도시공간구조가 확립된 상황으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 심화된 상황

[그림 7-5] 도시성장과정(2010년대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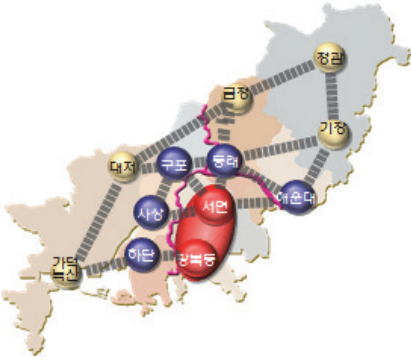
※ 영상사진 : 부산연구원 영상자료, 2019년 항공사진
 ※ 토지피복도 : 환경공간정보서비스(2021년 토지피복 세분류 현황)

04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나. 도시기본계획상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추이

- 도시형성 시기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남포·광복동 중심의 단핵 공간구조였으나, 1980년대 후반, 시 외곽지역의 주거지화는 도시공간의 확대와 더불어 도시성장을 가져옴
- 1980년대 이후 수립된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최초로 장래 도시의 골격을 구상하였으며, 그간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다핵화로 전환하려는 계획 수립
 - 1996년에 수립한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8개의 다핵 공간구조 제시
 - 2004년에 수립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6개의 핵을 통한 다핵 공간구조 제시

[표 7-1]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연도별 공간구조 변화

구 분	2011년 도시기본계획(변경)	2020년 도시기본계획
기본방향	· 다핵 분산형 중심지체계	· 다핵 분산형 중심지체계
승인 및 목표연도	· 승인연도 : 1996년 · 목표연도 : 2011년	· 승인연도 : 2004년 · 목표연도 : 2020년
계획구역	· 부산시 전 행정구역 및 항만어항구역 전체 (A=997.313km ²)	· 부산시 전 행정구역 및 항만어항구역 전체 (A=997.313km ²)
계획인구	· 450만명	· 410만명
공간구조 구상	· 2도 심 : 기존도심서면 · 6부 도 심 : 사상구포·하단동래·해운대·가덕녹산 · 2지역중심 : 기장구서	· 1도 심 : 광복동서면 · 5부 도 심 : 하단·사상구포동래·해운대 · 5지구중심 : 기장정관금정대자·가덕녹산
생활권 설정	· 3대생활권 : 서부산권·중부산권·동부산권	· 3대생활권 : 서부산권·중부산권·동부산권
공간구조 구상도		

(표 계속)

(표 계속)

구분	2030년 도시기본계획	2030년 도시기본계획(변경)
기본방향	· 다핵 분산형 중심지체계	· 다핵 분산형 중심지체계
승인 및 목표연도	· 승인연도 : 2011년 · 목표연도 : 2030년	· 승인연도 : 2017년 · 목표연도 : 2030년
계획구역	· 부산시 전 행정구역 및 항만어항구역 전체 (A=995.740km ²)	· 부산시 전 행정구역 및 항만어항구역 전체 (A=995.740km ²)
계획인구	· 410만명	· 410만명
공간구조 구상	· 2도 심 : 광복서면 · 6부 도 심 : 강서덕천·사상·하단·동래·해운대 · 4지역중심 : 장안·기장·금정·가덕·녹산	· 1광역중심 : 3개 도심 연계 · 4도 심 : 광복서면, 해운대 강서 · 6부 도 심 : 덕천·사상·하단·동래·기장·신공항 · 5지역특화핵 : 장안·정관·금정·가덕·녹산
생활권 설정	· 3대생활권 : 서부산권·중부산권·동부산권	· 3대생활권 : 서부산권·중부산권·동부산권
공간구조 구상도		

7장

※ 자료 :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보고서, 해당년도

- 2011년 수립된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8개 핵을 계획하여 2020년 도시기본계획보다 특화된 계획을 수립
- 2017년 변경 수립된 「2030년 도시기본계획(변경)」에서는 다핵도시로의 공간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도심을 2개에서 4개로 증가시키고, 6개의 부도심과 5개의 지역특화핵을 추가
 - 광복, 서면, 해운대 도심의 광역중심성 강화 차원의 1개의 광역중심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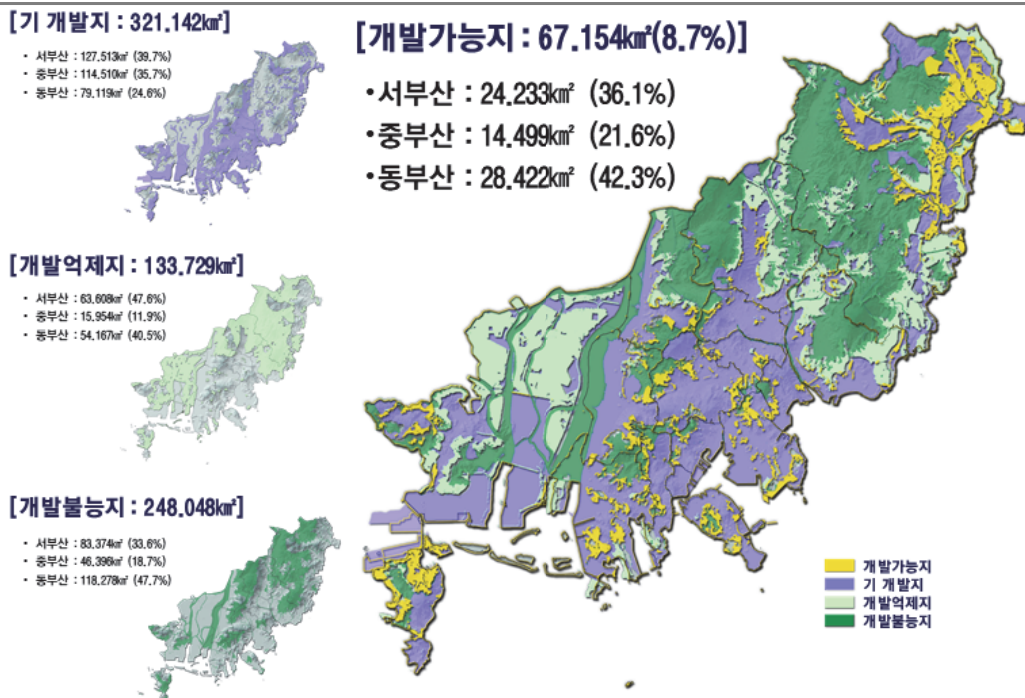
다. 도시공간구조 현황진단과 과제

1) 물리적 현황진단과 미래지향적 활용방안

■ 물리적 현황진단

- 지형여건상 3대 산악축 등에 의해 공간적 구분된 선형 도시로서 개발가능지 부족
 - 불광산~달음산축, 백운산~거문산~장산축, 금정산~백양산~구덕산축(황령산) 3대 산악축에 의해 공간적으로 분리된 선형도시로서 개발가능지 부족
- 토지이용현황상 서부산권 및 동부산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중
 - 중부산권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개발가능지가 풍부한 서부산권의 에코델타시티, 부산신항 배후 물류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과 일광도시개발사업,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등 동부산권 중심의 개발 사업이 편중되어 있음
- 생태환경상 보전지역에 대한 활용과 보전 방안 필요
 - 개발제한구역이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3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강서구, 금정구 및 북구 일원에 결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전 및 제한적 활용이 필요
 -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및 보전녹지 등 주요 녹지축에 대한 보전 필요
- 개발가능지가 행정구역 면적의 8.7%인 67.154km²로 도시발전을 위한 여유 토지 부족

[그림 7-6] 물리적 여건진단을 통한 개발가능지 분석



※ 주 : 개발억제지 면적은 개발불능지와 중복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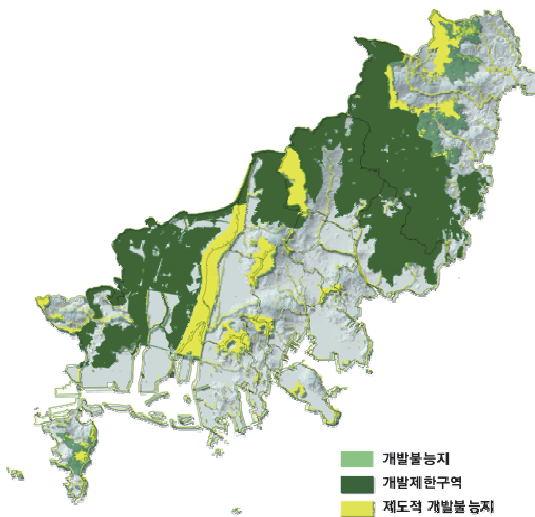
■ 물리적 여건분석에 의한 미래지향적인 토지활용방안

- 각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한 권역별 개발용지 구상을 마련하여 토지이용 활용도의 제약을 극복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미래지향적 토지이용 방안을 모색
 - 서부산권 : 신규개발이 집중된 지역으로 풍부한 유휴부지에 대한 미래지향적 토지이용 활용방안 모색
 - 중부산권 : 원도심 위주의 개발로 토지활용이 포화된 지역으로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용도복합화, 입지여건에 따른 압축개발 허용 등 개발용지 부족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
 - 동부산권 : 풍부한 개발용지와 보전하여야할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미래세대를 고려하여 한정된 토지자원에 대한 친환경적 활용 방안 모색

[그림 7-7] 미래지향적 토지활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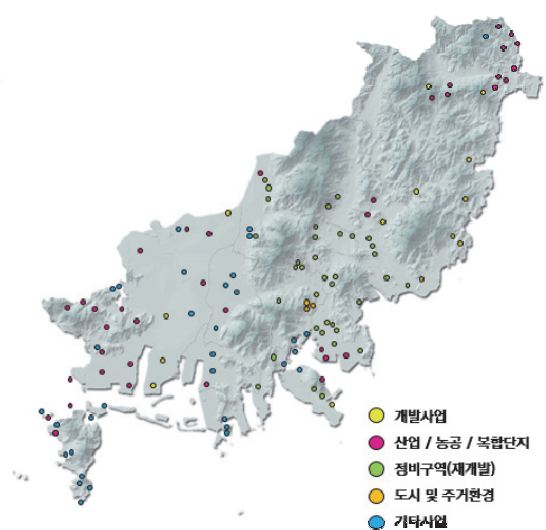
[개발억제 및 불능지 활용방안]

개발 억제 및 불능지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및 다목적 활용



[실제적 가용지 극대화 방안]

다양한 신규 개발사업 발굴과
원활한 추진으로 개발용량 극대화



서부산권

유휴부지
미래지향적
활용

낙동강변
농업 평야지대
백도, 둔치도
가역도

미래 부산권 부족기능 충족을
위한 장기 발전구상 구축

중부산권

포화상태
해소방안
모색

남부 해안 주변
구릉지 주변
북부 산악연계점
기 개발지

구도심 재생을 통한 개발용량
증대와 입체/복합적 기능 도입

동부산권

한정된
개발자원
친환경 활용

동남해안선
산림지대
수영강 주변
동북부 농업취락

친환경 개발을 전제로 제도적
토지이용 한계 극복

04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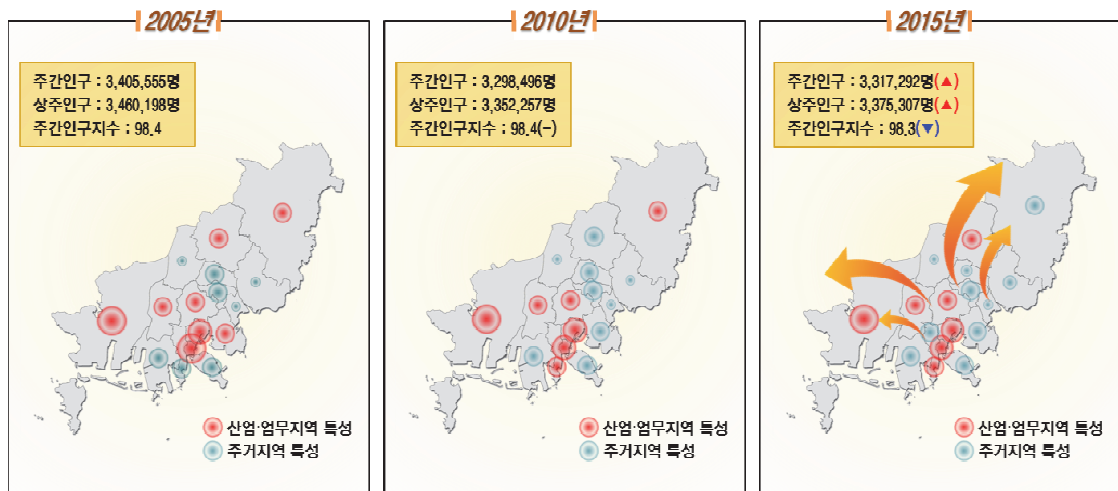
2) 주간 및 활동인구 분석

- 2005년 : 신규 개발지 및 기존 도심의 주간인구 집중
- 2010년 : 신규 도심지 및 대규모 개발사업지를 중심으로 주간인구지수 증가 추세
- 2015년대 : 기존 도심의 주간인구지수 유지와 신규개발 중심지로의 확장이 동시에 확인
 - 중구 및 동구의 경우 기존 도심으로의 인구활동 증가로 하락세가 증가세로 변화
 - 해운대구, 강서구, 연제구 등 신규 도심지를 중심으로 주간인구지수 유지
- 활동인구지수로 보았을 때, 다핵도시의 특성이 부산의 공간구조의 성격으로 고착화

[표 7-2] 주간인구지수 비교(2005년 및 2010년 대비 2015년 현황)

구 분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2005년	197.3	95.6	129.5	91.5	104.3	90.1	102.5	77.4	83.8	95.2	101.4	213.3	91.5	83.3	109.9
2010년	180.4	100.3	123.7	93.7	100.9	89.8	98.9	79.7	88.8	94.4	99.5	213.7	94.9	86.8	108.9
2015년	195.4	97.9	124.3	95.0	100.2	86.7	97.0	76.3	89.7	92.4	100.7	192.3	93.3	83.1	112.0
비 고	△150	2.4	△0.6	△1.3	0.7	3.1	1.9	3.4	△0.9	2.0	△1.2	21.4	1.6	3.7	△3.1

[그림 7-8] 주간 및 활동인구 변화추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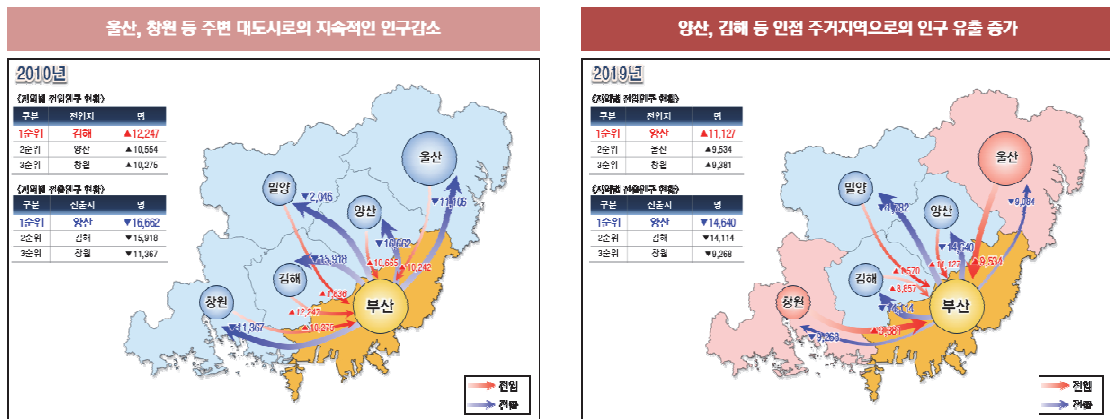
2. 도시공간구조 분석

가. 인구이동에 의한 도시공간구조 분석

1) 인접 도시로의 인구이동(전입·전출) 인구이동 추이 변화

- 2010년 인구동태는 전반적으로 부산에서 인근 경남지역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임
 - 전입인구는 김해에서 부산으로의 유입인구가 12,24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전출인구는 부산에서 양산으로의 유출인구가 16,66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19년에는 인근 대도시로부터의 유입은 증가, 인접도시로의 유출은 감소하는 추세
 - 2019년의 인구이동 동태 상 울산, 창원 지역으로부터 유입인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경남지역(밀양, 김해, 양산)으로 유출되는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
 - 전입인구는 양산에서 부산으로의 유입인구가 11,12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출인구는 부산에서 양산으로의 유출인구가 14,64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도시기능 회복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통한 인구유출 방지 및 유입 매력 강화 필요한 것으로 분석

[그림 7-9] 전입·전출 인구이동 추이 변화 분석



2) 내부적 인구이동 특성

■ 자치구군 내 전입 인구이동 Flow 분석

- 기존 외곽 거주자들의 중심지 신규이동 강세
- 2019년 부산 내부 전입 인구이동 흐름은 외곽에서 중심으로 집중되는 양상
 - 총 전입인구 규모에서는 부산진구가 34,401명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순 전입인구에서는 사상구가 619명으로 가장 많은 순전입 이동 수치를 나타냄

04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 도심 노후에 따른 교외화 현상 방지를 위하여 콤팩트 개발 등 원도심에 대한 재정비 전략의 도입이 요구됨

[표 7-3] 2019년 내부 전입인구 이동 현황

구 분	총 전입인구(인)	순전입지 1순위	1순위지로의 순전입인구(인)
부산진구	34,401	사상구	619
해운대구	34,018	수영구	268
동래구	31,766	금정구	1,293
남구	26,216	사하구	104
사하구	23,417	서구	408
연제구	23,152	부산진구	1,615
수영구	21,151	남구	1,185
북구	19,692	금정구	57
금정구	18,001	남구	74
강서구	16,086	사하구	2,602
사상구	13,652	영도구	73
동구	10,980	남구	407
기장군	9,463	해운대구	209
서구	8,746	중구	100
영도구	7,124	없음	-
중구	4,245	영도구	75

■ 자치구군 내 전출 인구이동 Flow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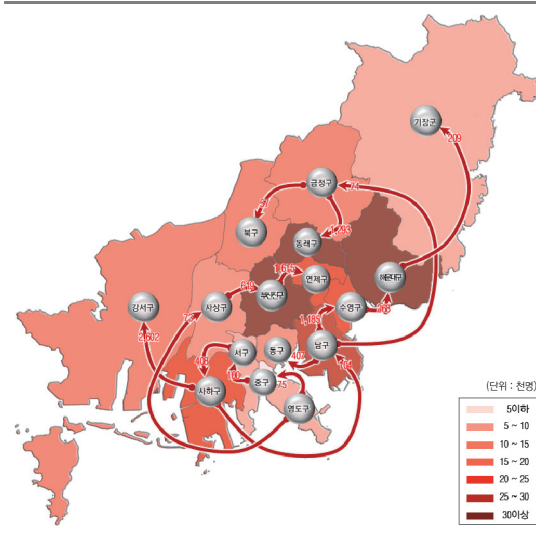
- 동래구와 강서구로 전출 인구이동 흐름 강세
- 2019년 부산 내부 전출 인구이동 흐름은 중부산권에서 가장 강세를 보임
 - 총 전출인구 규모에서도 부산진구가 36,545명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며,
 - 순 전출인구에서는 연제구가 1,615명으로 가장 많은 순전입 이동 수치를 나타냄
- 인구이동 추이를 고려한 새로운 지역중심의 육성과 특성화 전략의 도입이 요구됨

[표 7-4] 2019년 내부 전출인구 이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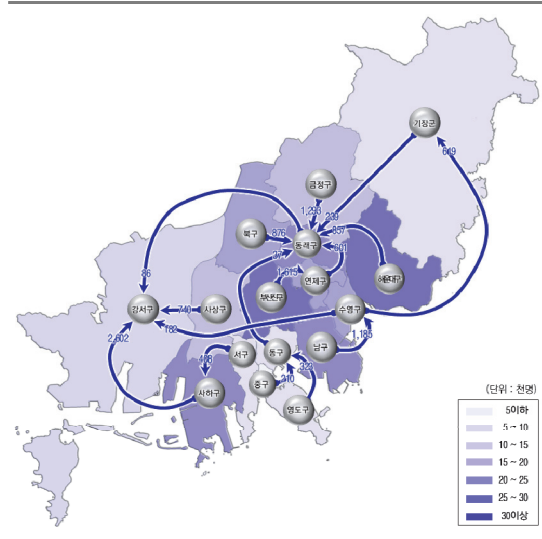
구 분	총 전출인구(인)	순전출지 1순위	1순위지로의 순전출인구(인)
부산진구	36,545	연제구	1,615
해운대구	34,194	동래구	857
남구	29,569	수영구	1,185
사하구	26,733	강서구	2,602
동래구	25,417	강서구	86
북구	21,393	동래구	876
연제구	20,625	동래구	601
수영구	20,098	강서구	182
금정구	19,940	동래구	1,293
사상구	16,185	강서구	740
강서구	10,346	없음	-
서구	9,879	사하구	408
동구	9,005	동래구	37
기장군	8,838	동래구	239
영도구	8,574	동구	323
중구	4,769	동구	210

7장

[그림 7-10] 2019년 내부 전입 이동 현황도



[그림 7-11] 2019년 내부 전출 이동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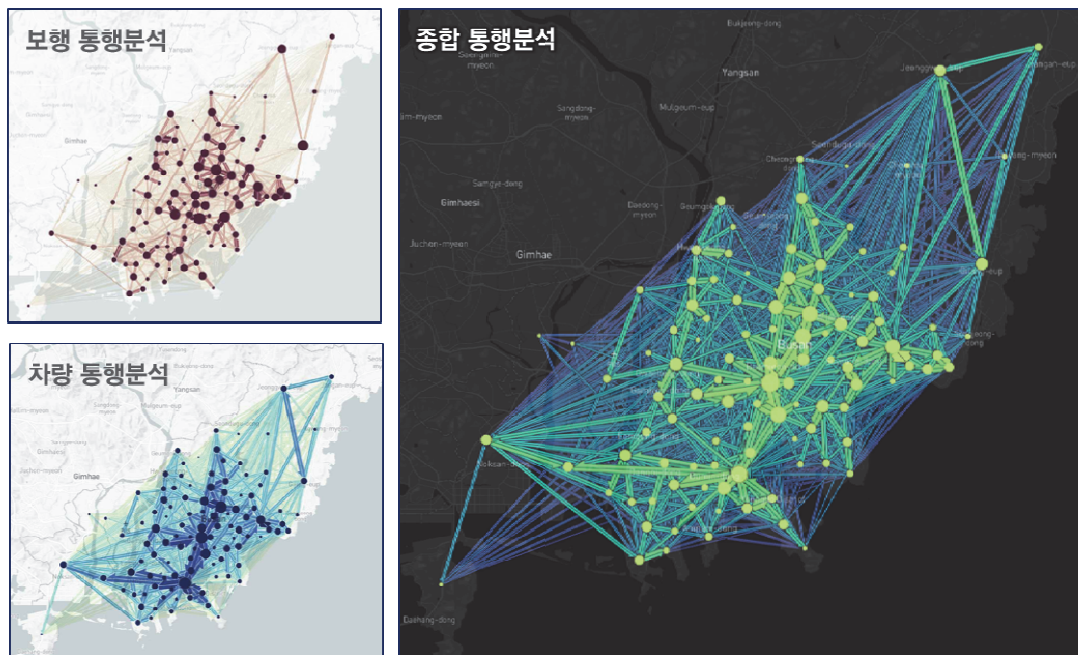


[표 7-5] OD분석에 의한 통행실태 점유율 변화 현황

2010년		2016년		변화량 (% p.)
구군	점유율(%)	구군	점유율(%)	
해운대구	12.76	부산진구	11.2	-1.23
부산진구	12.43	해운대구	9.42	-3.34
사하구	9.53	남구	7.61	-1.1
남구	8.71	사상구	7.58	0.89
동래구	7.43	북구	7.42	0.89
사상구	6.69	사하구	7.25	-2.28
북구	6.53	연제구	6.98	1.87
금정구	6.45	금정구	6.76	0.31
연제구	5.11	동래구	6.65	-0.78
수영구	4.38	수영구	5.42	1.04
동구	4.27	강서구	4.5	1.65
영도구	3.66	서구	4.37	0.75
서구	3.62	영도구	4.19	0.53
중구	3.29	기장군	4.02	1.74
강서구	2.85	중구	3.93	0.64
기장군	2.28	동구	3.85	-0.42

2) 통행량 네트워크 분석에 따른 이용 중심성 분석

[그림 7-13] 통행량 네트워크 분석에 의한 이용 중심성 분석도



04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 통행수단별 기종점 통행량(O/D) 조사자료와 지리정보를 결합하여 시각화 분석을 통해 지역 간 통행량 분석을 통한 중심성 검토
 - 플로우맵(Flowmap) 네트워크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2017년 기준 부산지역 기종점 통행량 자료에 의한 이용중심성 추출
- 보행통행과 차량통행 중첩 결과 부산진구, 중구, 연제구, 해운대구 등의 통행량 집적이 매우 높은 것으로 표출됨

다. 지역쇠퇴도 분석에 의한 도시공간구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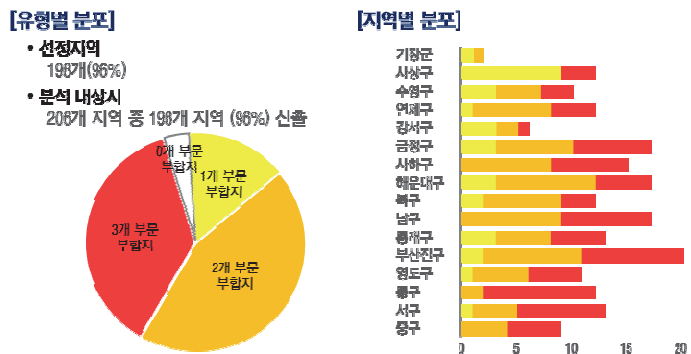
■ 지역쇠퇴도 분석 개요 및 검토 인자

- 읍면동별 인구 감소, 사업체 감소, 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각종 인자의 변화추이에 따라 해당지역의 쇠퇴도를 정량화하여 분석단위의 지역쇠퇴 상황을 지표화하여 지역발전 추이나 향후 예측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 인구감소 인자
 -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인구가 20% 이상 감소한 지역
 -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 사업체감소 인자
 - 최근 10년간 전국사업체 총 조사 결과 총 사업체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총 사업체 수가 5% 이상 감소한 지역
 -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수가 감소한 지역
- 주거환경 악화 인자
 -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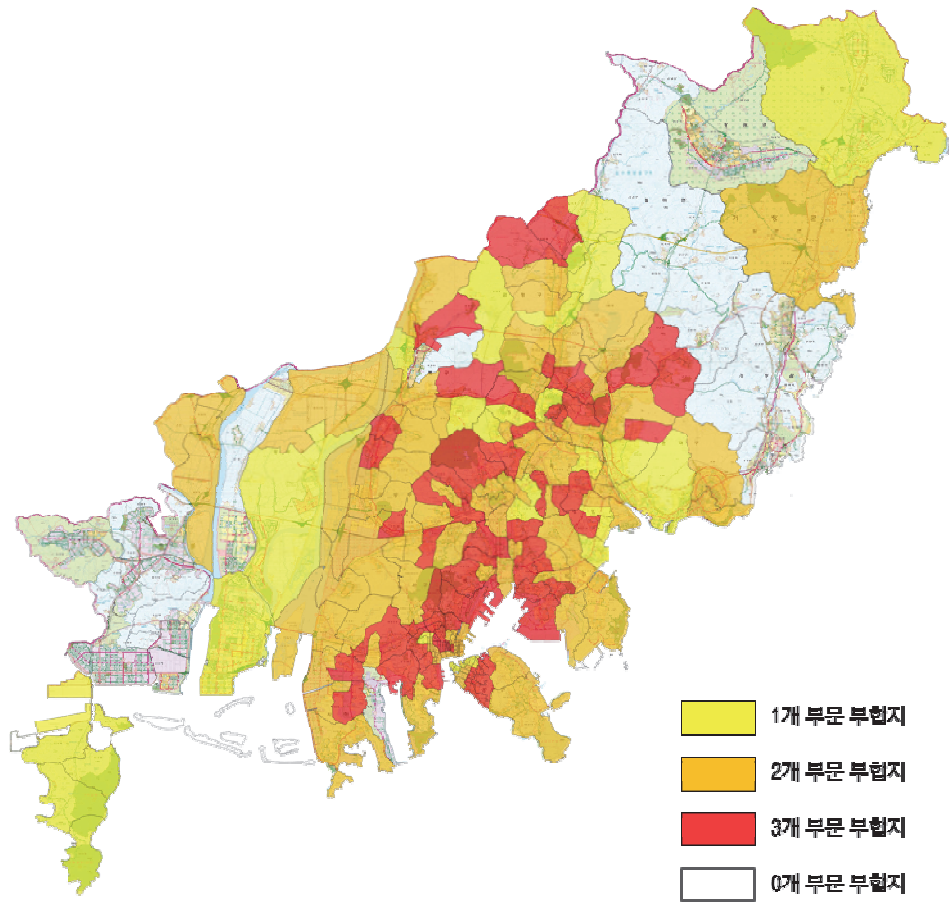
■ 지역쇠퇴도 분석 결과

- 원도심을 중심으로 중부산권에 지역쇠퇴도가 높은 자치구가 많이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중심성의 유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공간 구조에 재편이 요구

[그림 7-14] 자치구군별 지역쇠퇴도 분석 결과



[그림 7-15] 지역쇠퇴도 분석도



라. 기타 분석수단에 의한 도시공간구조 분석

1) 빅데이터(통신데이터)에 의한 유동인구 분석

■ 통신데이터에 의한 인구활동 분석의 의의

- 빅데이터분석에 따른 유동인구 분석은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통신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간대별 인구활동 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
- 제공된 통신데이터는 50m × 50m 단위로 시간대별 이동통신중계기 접속 상황을 표현

■ 도시공간구상에 대한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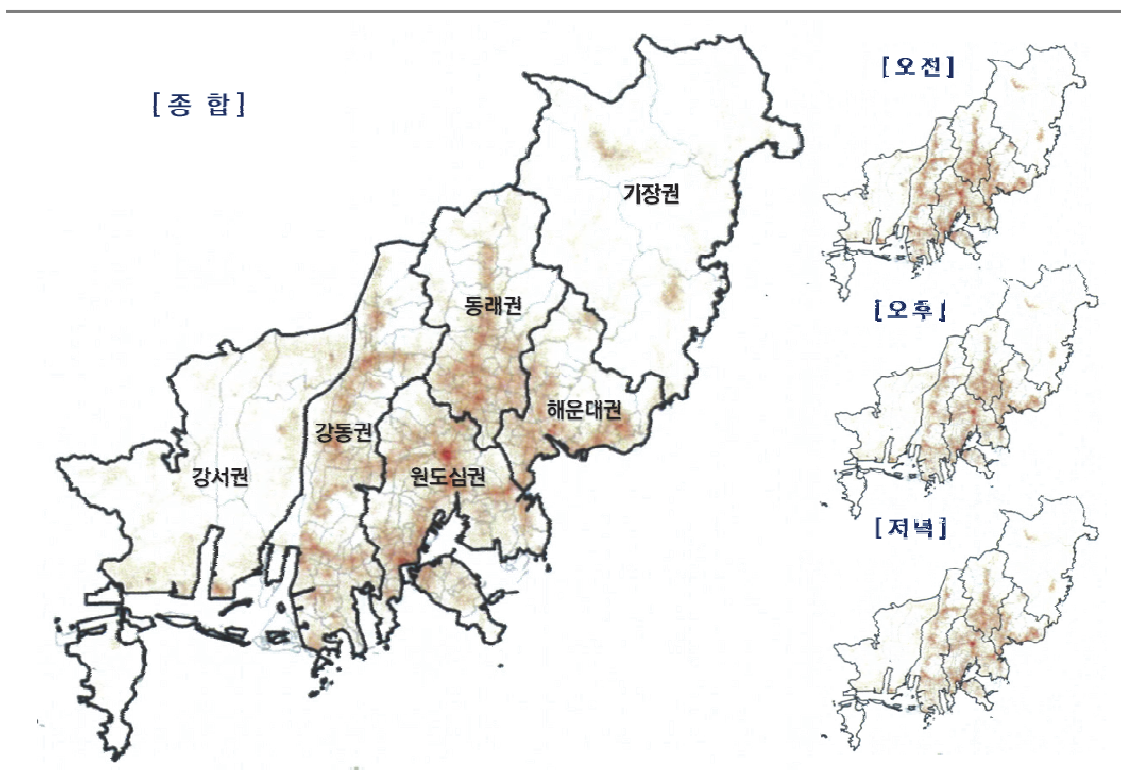
- 유동인구는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원도심권, 강동권에 많은 유동인구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면밀한 중심지 분석을 통한 생활권 계획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필요

04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표 7-6] 빅데이터(통신데이터)에 의한 유동인구 분석 현황

권역		유동인구 비율(%)			
		오전	오후	저녁	전체
동부산권	기장권	4.7	4.2	3.6	4.4
	해운대권	14.4	16.8	18.1	16.5
중부산권	동래권	19.5	20.2	20.8	19.7
	원도심권	29.9	31.2	31.6	31.1
서부산권	강동권	24.6	23.4	22.9	23.0
	강서권	6.9	4.2	3.0	5.3
합계		100.0	100.0	100.0	100.0

[그림 7-16] 빅데이터(통신데이터)에 의한 유동인구 분석도



2) 빅데이터(카드매출)에 의한 인구활동 분석

■ 카드매출에 의한 인구활동 분석의 의의

- 카드매출액에 대한 빅데이터분석에 따른 인구활동 분석은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카드매출액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간대별 경제활동에 따른 인구활동 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

■ 도시공간구상에 대한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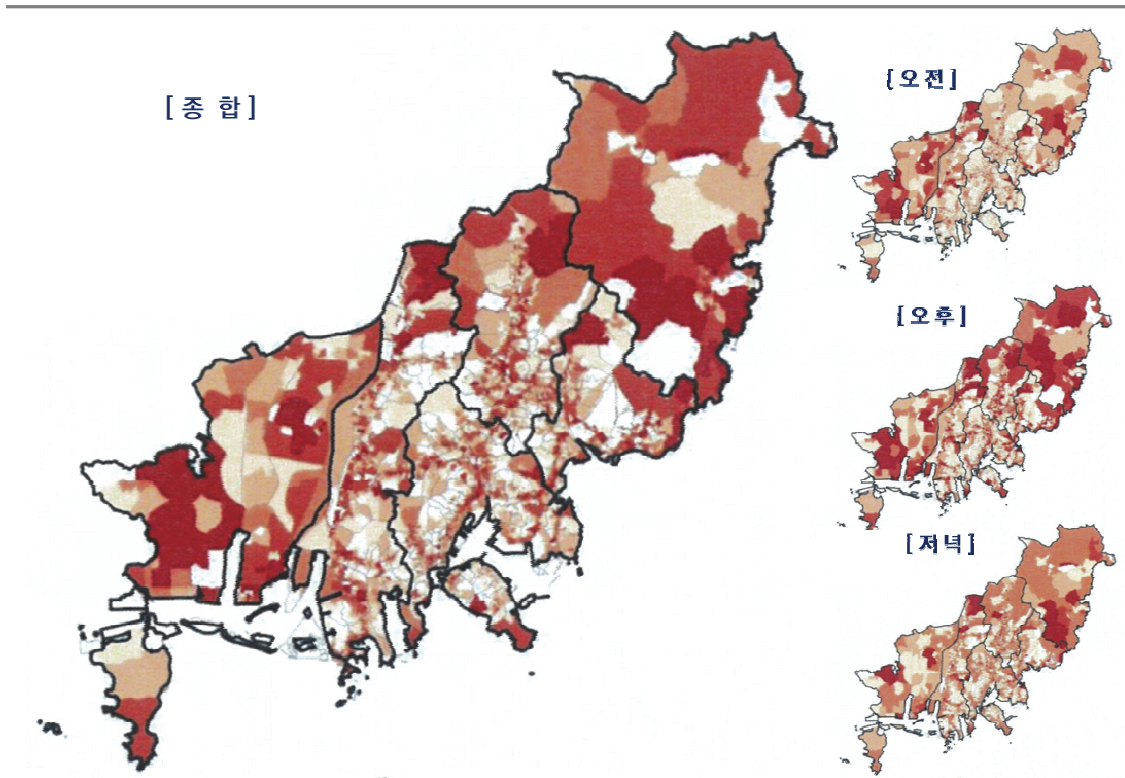
- 오전은 산업체가 많은 기장권 및 강서권에 카드매출이 높음 것으로 나타남
- 오후는 구매력 높은 소비활동이 높은 기장권의 매출이 큰 비중
- 저녁은 다른 시간대와 비교하여 매출 분포가 고른 상황으로 지역상권육성과 경제기반 확충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표 7-7] 빅데이터(카드매출)에 의한 인구활동 분석 현황

권역		유동인구 비율(%)			
		오전	오후	저녁	전체
동부산권	기장권	23.8	64.7	27.3	61.3
	해운대권	6.7	9.6	17.3	8.8
중부산권	동래권	5.7	6.2	12.2	6.1
	원도심권	4.9	2.9	7.2	3.1
서부산권	강동권	17.1	6.7	18.2	7.3
	강서권	41.8	9.9	17.8	13.4
합계		100.0	100.0	100.0	100.0

7장

[그림 7-17] 빅데이터(카드매출)에 의한 인구활동 분석도



3) 대중교통(버스)이용 빅데이터에 의한 인구활동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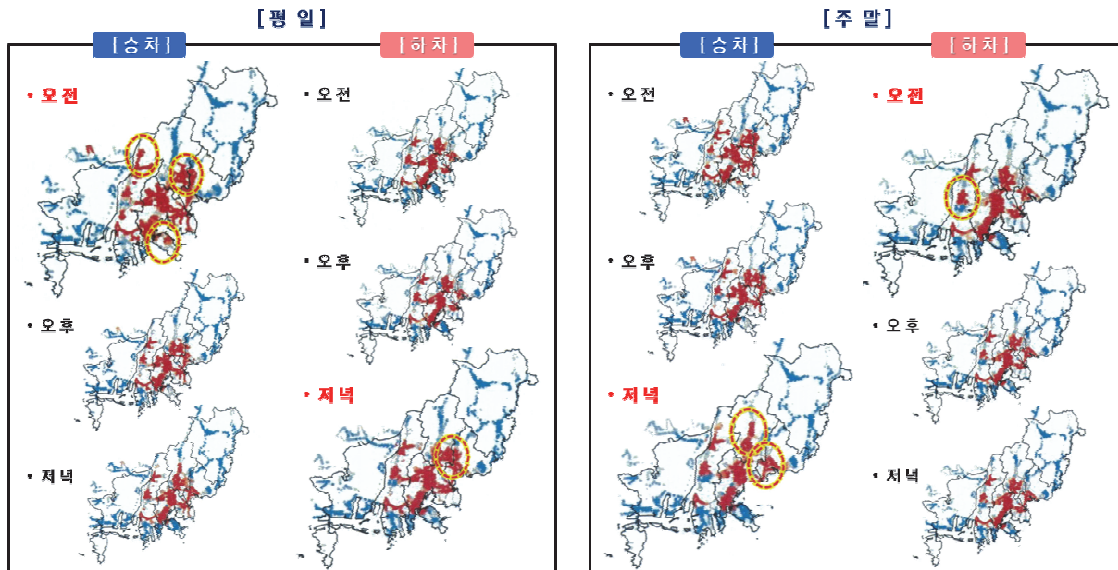
■ 평일 버스승하차 빅데이터 분석

- 버스정류장별 승하차 특성 분석, 주중과 주말, 오전-오후-야간대별 대중교통패턴 분석한 결과 승차와 하차 모두 유동인구가 높은 기역과 유사한 패턴이 나타남
 - 승차 : 영도(오전), 금곡(오전), 재송(오전), 장전(저녁)에 특별히 높은 패턴
 - 하차 : 재송(저녁)에 특별히 높은 패턴

■ 주말 버스승하차 빅데이터 분석

- 승차와 하차 모두 유동인구가 높은 지역과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남
 - 승차 : 장전(저녁)에 특별히 높은 패턴, 재송(저녁)에 낮은 패턴
 - 하차 : 사상(오전)에 특별히 높은 패턴, 센텀(저녁)에 낮은 패턴

[그림 7-18] 버스승하차 빅데이터 분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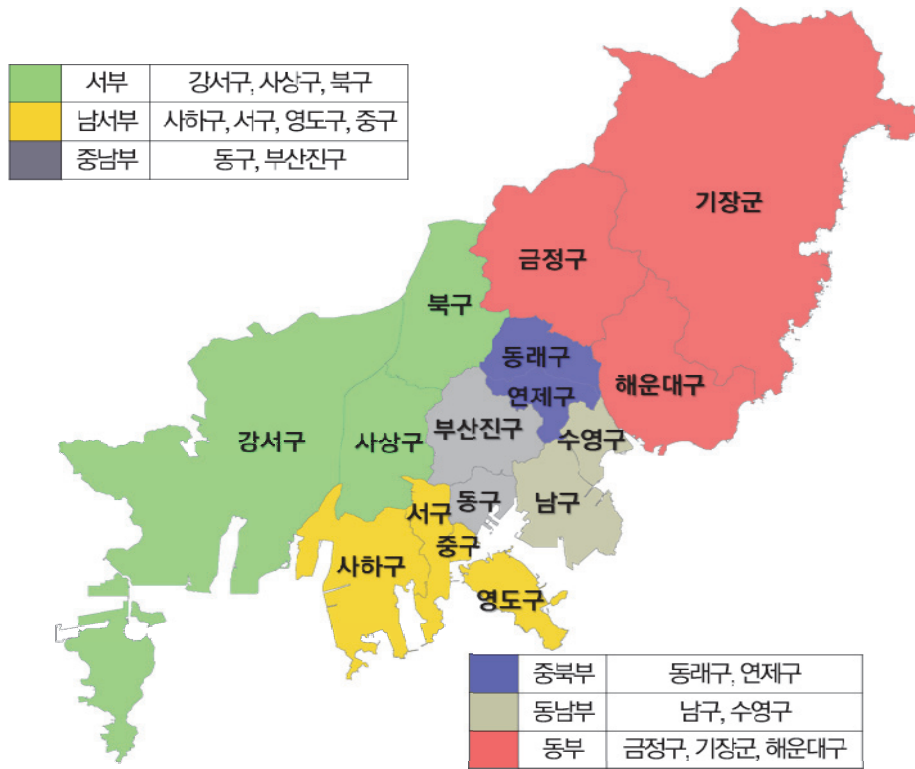
4) 교통목적(OD) 통행패턴 분석에 의한 통행영향권 분류

- 가구통행 및 시내버스 OD분석에 의한 통행패턴을 분석하여 6개 권역의 통행영향권으로 분류
 - 사하구의 경우 생활권 구분상 서부산이나 통행패턴은 중부산권인 서구와 가장 밀접
 - 수영구의 경우 생활권 구분상 동부산이나 통행패턴은 중부산권인 남구와 가장 밀접
 - 금정구의 경우 생활권 구분상 중부산이나 동래구, 해운대구, 기장군과 통행패턴이 밀접

[표 7-8] 통행패턴 분석에 의한 통행영향권 분류

OD분석 권역구분	구·군	내부 통행빈도	1순위	2순위	3순위
서부권역	강서구	75.2%	북구	사상구	사하구
	사상구	80.0%	북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	93.9%	사상구	동래구	강서구
남서부권역	사하구	84.7%	서구	강서구	사상구
	서구	82.2%	사하구	영도구	사상구
	영도구	91.5%	사하구	서구	남구
	중구	56.2%	서구	영도구	사하구
중남부권역	동구	70.2%	부산진구	남구	중구
	부산진구	70.4%	사상구	남구	연제구
중북부권역	동래구	79.1%	금정구	연제구	해운대구
	연제구	82.0%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동남부권역	남구	88.0%	수영구	해운대구	부산진구
	수영구	87.0%	남구	연제구	해운대구
동부권역	금정구	85.3%	동래구	해운대구	기장군
	기장군	91.0%	해운대구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85.8%	수영구	동래구	남구

[그림 7-19] 통행영향권 분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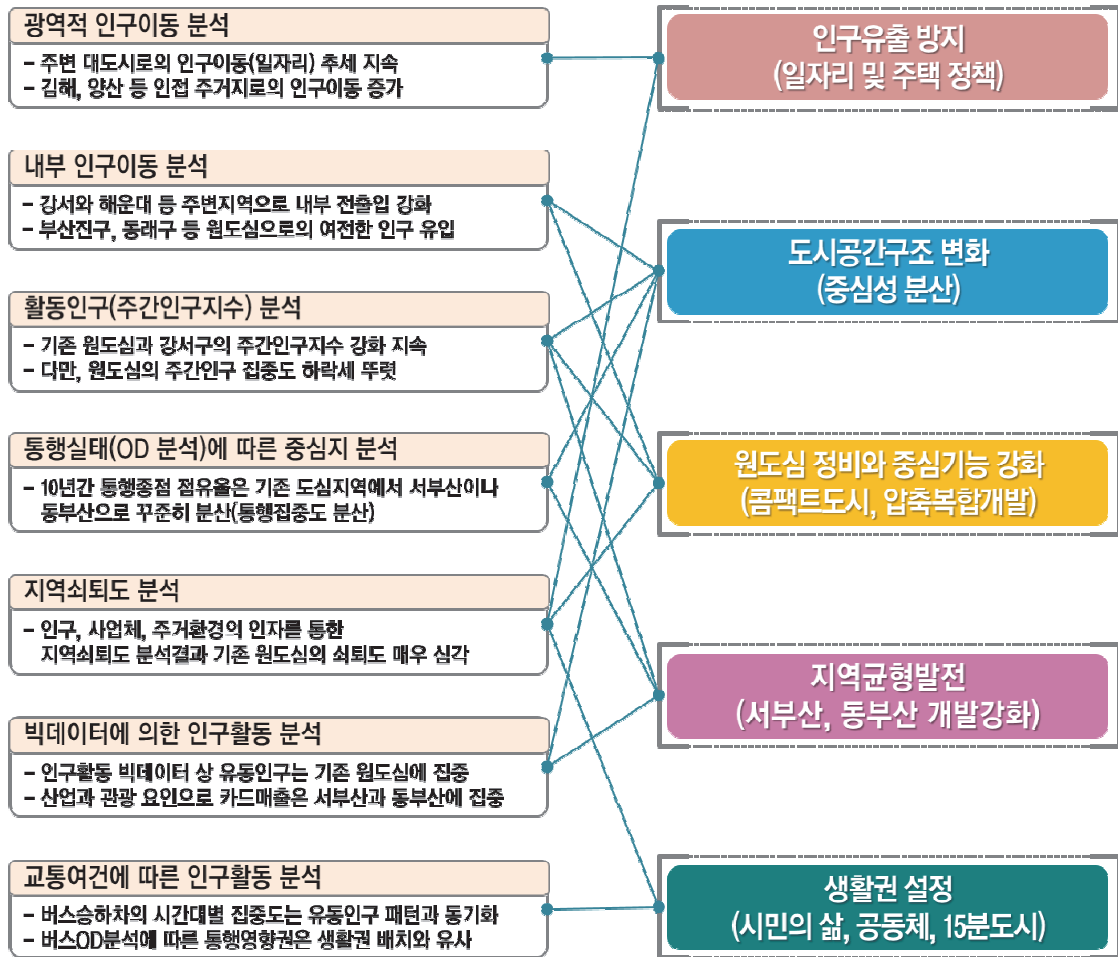


04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마. 각종 분석 결과에 대한 도시공간구조 변화상과 대응방안

- 종합분석에 사용된 분석방법은 광역적 인구이동, 내부 인구이동, 활동인구(주간인구지수), 통행실태(OD)에 따른 중심지 현황, 지역쇠퇴도, 빅데이터에 의한 인구활동, 교통여건에 따른 인구활동에 대한 분석으로
- 현재 시점에서 확인 가능하거나 각종 공공자료, 연구자료 등을 통해 취합된 상기의 각종 분석방법을 종합한 결과 다음의 도시공간구조 구상과 부문별 계획에 반영할 주요 시사점과 대응방안 도출

[그림 7-20] 각종 분석수단을 종합한 도시공간구조 변화상과 대응방안



- 도시의 발전과 시가화 지역의 확장,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공간의 변화로 단핵 중심성이 약화되고 외부지역의 새로운 중심지가 형성되며 신규 중심지로 중심성의 이동이 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단핵체계에서 다핵체제로 이행되고 있는 부산의 현실에 부합하는 도시공간구상의 재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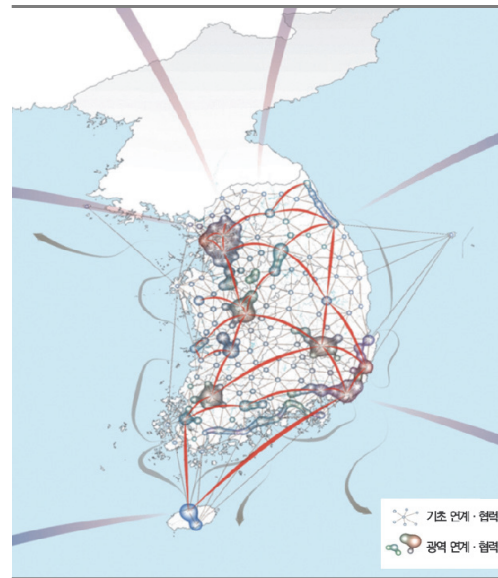
2 도시공간구조 개편방향

1. 기본방향

가. 국토정책에 부합되는 공간구조 구상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서 제시한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국토공간 형성전략으로 “지속가능한 국토공간 실현”을 위한 공간구조 구상 검토
- 혁신+자율+협력의 기본이념과 비움(환경+생태), 채움(복합+재생), 연결(교통+공유)의 추진전략 설정
- 국토공간전략으로 다중심 국토공간 조성, 지역산업 혁신기반, 일자리와 교통시설 확충, 생활기반시설 확충, 지역의 선택권 강화,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지역발전에 부합되는 공간구조구상

[그림 7-21] 제5차 국토종합계획 상 국토공간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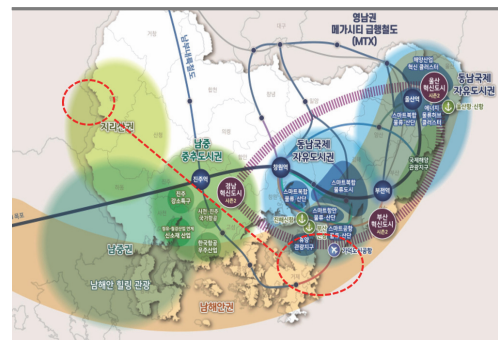


7장

나. 광역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적 도시공간구조

- 부산을 광역권 경제 중심거점 도시로 성장시키고 부산중심의 광역권이 국토균형발전의 모델이 되는 도시공간구조 구상
- 서부산권, 동부산권 및 중부산권의 3개 생활권별 거점개발을 통한 균형발전이 가능한 공간구조 구상

[그림 7-22] 동남권 광역도시를 위한 공간구상(안)



다. 중심지체계, 도시기능, 도시발전 및 보전축을 고려한 공간구조 개편

- 단순 가로망 위주의 연계에서 기능간 연계로의 전환이 가능한 공간구조 구상
- 위계별 공간구조를 탈피하여 기능별 특화가 가능한 도시공간구조 형성

2. 공간구조 개편 대안

가. 기정 2030년 도시기본계획(변경) 상 공간구조 구상 분석

1) 기본개념

- 다핵분산형 중심지 체계로 광역중심형 도시공간구조를 육성하고 방사환상형 중심지 체계 구상 계획 수립

2) 공간구조 구상

- 1 광역중심 : 4도심의 연계

- 글로벌 연계 허브지역이며, 환태평양교류 관문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광역중심을 계획하고 개별 도심(광복, 서면, 해운대, 강서)의 통합을 통해 경제권 중심지 육성

- 4 도심 : 광복, 서면, 해운대, 강서

- 원도심 일원(광복 및 서면) 도심기능 유지, 컨벤션 및 영화산업의 중심인 해운대를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조정, 중심지로 성장해가는 서부산권(강서) 도심기능 부여

- 6 부도심 : 하단, 사상, 신공항, 덕천, 동래, 기장

- 광역경제권의 연계기능 강화 역할 수행을 위해 도심기능을 보완하는 6부도심 계획

- 5 지역특화핵 : 가덕, 녹산, 금정, 정관, 장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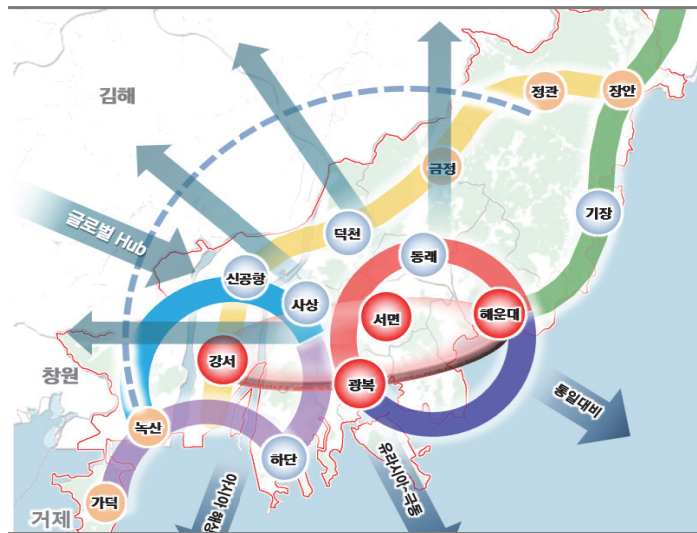
-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중생활권의 중심지 역할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특화핵 설정

3) 공간구조 특성 분석

- 중부산 도심의 중심지 연계를 통한 광역중심 설정으로 글로벌·그랜드 부산의 부합하는 중심지 체계 구축

- 방사환상형 도시발전축 구상으로 글로벌시티로의 발전 도모하고 2030년 도시기본계획(변경)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공간구조상 보전축 유지

[그림 7-23]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 도시공간구조



나. 공간구조 개편대안 검토

1) 대안 I : 다핵분산형 지역균형발전 공간구조 구상

■ 기본개념

- 다핵분산형 공간현황에 부응하는 지역균형발전 도시공간구조

■ 중심지 체계 및 개발축

- 동일위계 10개 중심지, 4대 혁신성장축, 5개 연계거점

■ 공간구조에 대한 특화 전략

- 부산은 국토공간 상 핵심적 대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핵도시로의 외형적, 기능적 특성이 완비된 상황
 - 글로벌 광역 중심도시로의 위상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도시공간 내 소수의 중심지를 선정하여 중심성을 강화시키고 집중된 중심성을 주변지역으로 확산하는 기존의 공간정책으로는 도시가 가진 잠재력과 기능적 특성을 발휘하는데 한계에 봉착
- 따라서, 기능별로 특화된 중심성을 지닌 10개의 중심지(10-Core)를 동일위계로 설정하고 각 중심지별 기능특화를 연계한 4대 혁신성장축을 육성하여 입지적 특성과 지역이 보유한 잠재력을 십분 발휘하고 지역별 경쟁이 아닌 기능적 보완과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공간구조로 개편
 - 국토공간 상 핵심 대도시 및 글로벌 광역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유지·확보
 - 내부적으로 충진된 발전 잠재력을 인접 도시로 확산하여 부울경 광역도시권의 성공적 안착을 통한 국토공간의 균형발전에 일조

■ 공간구조의 타당성

- 다핵분산형 공간구조가 형성된 상황을 반영하여 소수의 중심지가 도시공간 상에서 경쟁함으로써 발생하는 도시 성장 잠재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기능별로 특화된 지역별 발전 전략의 수립이 가능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도시공간구조로 평가
- 10-Core는 점(point)적인 배치, 4대 혁신성장축은 중심지의 기능별 입지별 연계로 선(line)적인 개발축 설정, 개발방향을 주변지역으로 연계시키는 연계거점을 통해 부울경 광역도시권 완성이라는 면(plane)적인 구상이 가능하여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기하학적 확장과 이해의 발전이 기대됨

2) 대안Ⅱ : 광역중심형 공간구조 구상

■ 기본개념

- 광역중심 육성형 다층적 도시공간구조

■ 중심자체계

- 1 광역중심, 4 도심, 6 부도심, 8 지역특화핵
 - 1 광역중심 : 중부산권 도시중심성 강화를 통한 광역허브기능 유치
 - 4 도심 : 기존 도심기능의 지속적 유지를 위하여 4개 도심 존치(광복 → 북항 명칭변경)
 - 6 부도심 : 지역별 중심성 안배를 위한 부도심 배치(서부산권 신공항부도심 변경)
 - 8 지역특화핵 : 지역특색 및 중심지 도시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특화핵 설정(기존 5개 지역특화핵 → 8개 지역특화핵 보완)

■ 공간구조에 대한 특화 전략

- 기정 계획인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2017.) 상의 도시공간구조 기초를 유지하여 종합적 정책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계획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공간구조의 일관성과 도시정책의 안정성 도모
- 공간구조 특화전략
 - 기존 도심(서면 + 북항 + 해운대)의 연계를 통해 광역중심성 강화 도모
 - 강서도심과 신공항부도심을 연계 설정하여 서부산권 성장축 육성
 - 지역특화핵을 5개에서 8개로 정비·보완하여 공간구조 재편의 실행력을 제고 및 지역특색 반영

■ 공간구조의 타당성

- 기정 계획의 도시공간구조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미래 부산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일부 정비 및 보완한 광역중심형 공간구조는 장기계획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계획적으로 타당성을 찾을 수 있음
- 다만, 소수의 중심지와 중심지간 위계의 구분에 따른 지역별 경쟁이 불가피하고, 재정적 정책적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이미 다핵분산형 공간구조가 형성된 상황을 감안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도시공간에 대한 적응성과 대응력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며,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중부산권의 일부 지역(서면, 북항지역)에 지역역량의 집중은 불합리한 요소로 평가됨

3) 대안의 비교 및 선정

- 다핵분산형 도시공간 현황을 반영하고 중심지의 기능특화와 중심지간 연계를 통한 성장축 육성이 미래 부산도시공간구상에 부합하므로 대안 I 을 선정

[표 7-9] 공간구조 대안비교 및 선정

구분	대안 I	대안 II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핵분산형 지역균형발전 도시공간구조 · 동일위계 중심지를 설정 및 입지특성 특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핵성장형 도시공간구조 · 계층별 도심지 체계
중심지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중심(동일위계, 10-Core) · 4대 혁신성장축 · 5개 연계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광역중심 · 4 도심 / 6 부도심 · 8 지역특화핵
발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별로 특화된 4대 혁신성장축을 육성하고 중심지(10-Core)를 연계한 개발축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하는 격자형 도시발전축 구상
생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대생활권을 유지 · 6개 중생활권을 세분하여 지역균형발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대생활권 : 서부산, 중부산, 동부산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핵화된 도시여건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중심지를 다핵구조로 설정하고 중심지 별 기능별 연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산권의 광역중심성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의 위계를 분명히 하고 외곽 지역 연계망 구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성장 과정 상 대도시로서의 도시골격 형성이 완료된 부산의 토지이용, 교통망, 생활권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이미 완성된 다핵분산형 도시공간구조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계획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계획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나 · 소수의 중심지로 인한 지역별 경쟁이 불가피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지장과 미래도시공간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
공간구조구상		
대안선정	●	

7장

3 도시공간구조 구상

1. 중심지 체계 설정

가. 10개 중심지 설정

1) 중심지 설정 기준

■ 동일 위상의 10개의 중심지 설정

- 공간정책 상 중심지의 기능특화와 인접중심지와 기능별 특화연계를 통한 성장축 구성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으로 10개 중심지(텐코어, 10-Core)를 선정
 - 상업, 문화, 행정, 교통 등의 종합적인 중심지이거나 특화된 기능적 중심성을 확보한 지역

2) 중심지 설정 내용

■ 10-Core : 기장, 해운대, 동래, 서면, 중앙, 덕천, 사상, 하단, 강서, 신공항

- 설정된 10개의 중심지는 각 지역에 대한 중심성이 확인된 지역이므로 지역의 입지특성에 따른 기능별 특화를 부여하여 도시공간구조 전체에 해당하는 일률적 중심성보다는 여건과 상황에 부합한 특화된 중심성 발휘를 도모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으로 설정
- 중심지별 특화전략에 따른 중심지 육성계획 수립 후 중심지 기능 고도화를 위한 용도지역 조정 및 밀도 조정 기준 마련,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합리적인 공공기여 방안과 연계 중심지 활성화 추진

[표 7-10] 도시공간구조 구상에 따른 중심지별 주요 기능

명 칭	주 요 기 능
기장	· 동부산 관광기능의 중심지로 기장 일원의 주거, 상업 기능
해운대	· 마이스산업, 영상문화의 중심지로 국제회의, 해양관광, 국제교류 기능
동래	· 전통적 도심으로 행정, 교육, 문화, 관광의 중심지이며 문화관광의 관문 기능
서면	· 업무, 금융 상업의 중심지로 부산 광역중심성과 구심력의 핵심
중앙	· 북항과 부산역 일원의 부산 근대역사의 상징적 지역이며 상업, 업무, 교류의 중심지
덕천	· 강동권 주거 중심지로 상업, 업무기능 보완과 인접 도시 연계 기능
사상	· 동서간 교통과 기간산업의 중심지로 산업기반 정비사업의 핵심
하단	· 상업 및 기간산업의 중심지로 다대뉴드림을 비롯한 해양연계 기능
강서	· 서부산 발전의 핵심으로 공항, 물류, 주거, 업무 등 복합개발의 중심지
신공항	· 부산신항과 가덕도신공항 개발의 중심지로 서부산 중심성 제고(Tri-Port)

[그림 7-24] 도시 중심지체계 구성(10-Core + 5개 연계거점)



나. 5개 연계거점 설정

1) 연계거점 설정 기준

■ 성장동력을 접경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연계거점 설정

- 성장동력을 접경지역으로 연계, 발전, 확산시킬 5개 연계거점과 연계축을 계획

2) 연계거점 설정 내용

■ 5개 연계거점 : 장안, 노포, 대저, 다대, 동삼

- 중심지와 혁신성장축으로 특화되고 집적된 지역의 성장동력을 주변지역과 연계하고 접경 지역으로 발전시켜 지역균형발전과 광역 중심성 확산 기능을 할 5개 연계거점 설정
- 울산접경연계거점 : 관광마이스거점축(해운대/기장) + 장안연계거점 → 울산방향
 - 관광마이스거점축의 특화기능을 장안연계거점의 신산업과 연계하여 울산지역으로 확산

04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 양산접경연계거점 : 국제업무경제혁신축(중앙/서면/동래) + 노포연계거점 → 양산방향
 - 국제업무경제혁신축의 성장동력을 노포연계거점 특화와 연계하여 양산지역으로 확산
- 김해접경연계거점 : 신산업혁신축(덕천/사상/하단) + 대저연계거점 → 김해방향
 - 강동권의 신산업혁신축과 대저연계거점의 주거기능을 연계하여 김해지역으로 확산
- 신공항연계거점 : 국제업무경제혁신축→동삼 + 신산업혁신축→다대 → 신공항방향
 - 원도심 중심의 국제업무경제혁신축에서 확산된 글로벌 중심성과 신산업혁신축에서 연계된 신성장 산업 기능을 동삼연계거점과 다대연계거점에 확산하여 가덕도신공항으로 연계
- 창원연계거점 : 공항복합도시성장축 → 창원방향
 - 강서중심지와 신공항중심지의 공항복합도시성장축의 발전방향을 가덕도신공항, 부산신항, 광역 철도망 연계를 통한 Tri-Port 완성에 의한 성장동력을 창원방향으로 확산

2. 기능별 연계체계 설정

1) 혁신성장축 설정 기준

■ 중심지에 대한 기능별 특화 유도

- 10개 중심지 별 입지적 특성에 따른 기능별 특화로 지역균형발전 도출과 중심지 고도화와 권역별 발전을 견인

■ 연계되는 중심지의 입지특성과 연계효과

- 각 중심지간의 입지적 거리에 대한 고려와 중심지별 기능의 연계가능성
- 혁신성장축에 설정된 기능을 기반으로 각 축별 발전 방향을 제시

2) 4대 혁신성장축 설정 내용

■ 관광마이스 거점축

- 기장중심지 + 해운대중심지
 - 국제교류 및 MICE 관련, 영상, 문화, 의료, 휴양, 관광 기능 연계

■ 국제업무경제혁신축

- 동래중심지 + 서면중심지 + 중앙중심지
 - 글로벌 금융, 금융기관이전, 행정중심기능,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반, 언론 연계

■ 신산업혁신축

- 덕천중심지 + 사상중심지 + 하단중심지
 - 신교통 관련산업, 지식산업, R&D, 소재 및 부품산업 연계

■ 공항복합도시성장축

- 강서중심지 + 신공항중심지
 - 유통산업, 물류기반 및 허브, 비즈니스, 항공산업, 복합기능 연계

3. 중심지의 기능별 연계를 통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구상

■ 10개의 동일위상의 중심지 설정

- 공간정책 상 중심지의 기능특화와 인접중심지와 기능별 특화연계를 위해 동일 위상의 10개 중심지(텐코어, 10-Core)를 설정

7장

[그림 7-25] 도시공간구조 재편 구상도



04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 기능별 연계를 위한 4대 혁신성장축 설정

- 중심지별 입지적 특성에 따른 기능별 특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 내고, 개별 중심지의 기능에 따라 연계성을 고려한 4대 혁신성장축 설정

■ 성장동력 확산을 위한 5개 연계거점과 연계축 설정

- 혁신성장축에 의한 성장동력을 접경지역으로 연계, 발전, 확산시킬 5개 연계거점과 연계축을 계획하여 도시공간구조 재편 완성

4. 도시발전축 설정

가. 중심지와 성장축의 기능적 연계를 확장시킨 도시발전축 설정

- 내부 도시공간체계 확립 및 외부와의 관계 정립을 위한 도시발전축 설정
- 광역도시권에 대한 중심성 유지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별 특화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시발전축 설정

[그림 7-26] 기능별 연계체계 구상(4대 혁신성장축)



나. 도시공간구조와 연계한 8대 도시발전축 구축

1) 국제비즈니스 거점축

- 강서~사상~서면~해운대 중심지를 연계하는 도시공간축의 중심이며 핵심적 발전축
- 2030 부산세계박람회, 국제금융단지, 공항 및 물류거점 연계

2) 해양 성장축

- 신공항~하단~중앙~해운대 중심지를 연계하는 남부 해안선의 주요 산업·업무 발전축
- 공항 및 물류거점, 신산업 재생지역, 2030 부산세계박람회, 국제관광마이스거점 연계

3) 강서권 개발축

- 신공항~강서~대저의 중심지와 연계거점을 연계하는 서부산의 주요 발전축
- 공항 및 물류거점, 강서중심지의 복합개발, 대저신도시 등 주거기능 연계

4) 강동권 개발축

- 덕천~사상~하단~다대의 중심지와 연계거점을 연계하는 낙동강 수변의 발전축
- 덕천, 사상과 하단의 신산업 혁신기능, 다대연계거점의 복합개발 기능 연계

5) 중부산 개발축

- 노포~동래~서면~중앙~동삼의 중심지와 연계거점을 연계하는 노후원도심의 재생과 복합 개발을 연계하는 창조적 도시재생축
- 중앙과 서면의 광역적 중심기능과 동래의 행정중심기능이 노포의 신규 주거기능과 원도심 재생활력, 동삼의 혁신산업 기능 연계

6) 신공항 연계축

- 동삼~다대의 연계거점이 가덕도신공항과 연계되는 개발축
- 동삼의 혁신신산업기능과 다대의 복합기능이 신공항의 광역교통망과 연계

7) 기장권 개발축

- 해운대~기장~장안의 중심지와 연계거점을 연결하여 국제관광마이스 기능이 휴양, 의료, 해양관광, 신산업 기능으로 이어지는 개발축
- 기장의 동부산권 중심기능과 장안의 신산업기능, 휴양의료관광 기능과 연계

8) 배후주거·휴양·여가축

- 대저~덕천~노포~장안의 중심지와 연계거점을 연결하여 다양한 정주공간과 시민휴양·여가 공간을 형성하고 부산 진입부의 상징적 경관을 창출하는 개발축
 - 북부생활권(기장~노포~화명~양산·김해)
 - 남부해안축(기장~해운대~광안리~영도~다대)
 - 북부산 해양레저벨트(장안~금정~덕천)

5. 도시녹지축(보전축) 설정

가. 녹지축 네트워크화를 통한 보전축 설정

- 도시에 둘러싸여 단절된 구릉지와 해안과 연안에 대한 네트워크화
- 자연과 사람이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부산을 위해 녹지축 형성 방안 모색

[그림 7-27] 녹지축 설정 구상



나. 녹지축 설정 내용

■ 산림축(6개)

- 대규모 산림 및 공원간의 연결하고 시가화, 철도 등 단절에 따른 녹지축 연계방안 모색

■ 하천축(5개)

- 하천을 통한 해안생태계 연결을 위해 서낙동강, 낙동강 등 하천 주변 대규모 공원·녹지 확충하고 도심형 하천 복원 등 세부 공원·녹지 계획 수립 제시

■ 해안축

- 해안축 활용을 통한 부산 고유의 자연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해 해수욕장, 대(臺), 항(港), 포(浦) 등 공원·녹지 확충을 통한 해안축 구축

■ Green Corridor

- 시가화, 도로 등 단절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하기 위해 산림, 하천 연계 등 도심지 내 Green Corridor 설정하여 단절된 네트워크 확보

6. 도시공간구조 구상도

[그림 7-28] 도시공간구조 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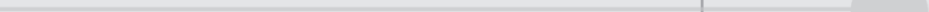


제8장



생활권 설정 및

생활권별 발전구상

- ① 기본방향
 - ② 생활권 설정기준
 - ③ 생활권 설정
 - ④ 중생활권별 발전구상
- 

제8장 생활권 설정 및 생활권별 발전구상

1 기본방향

- 도시미래상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구조를 반영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동남권의 광역도시구상 등 상위 공간구상과의 정합성과 기존의 부산도시기본계획과의 연속성 확보가 가능한 생활권 설정
-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현행 행정구역 경계를 최대한 유지한 생활권 설정
- 기존 도시발전추세와 장래 부산 광역발전축을 고려하고 자연환경, 교육환경 및 교통여건 등의 변화를 감안한 생활권 설정
- 생활권별 인구규모와 면적,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의 적정 배치를 위한 균형개발이 가능하도록 생활권 설정
- 기존 대생활권 설정만으로 확보할 수 없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기본적인 단위를 형성할 수 있는 하위개념의 중생활권 설정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중생활권 세분 및 중생활권역별 발전방향 제시
- 부산형 15분도시 실현 및 다핵도시로의 도시공간구조 정착 등을 위하여 시민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생활권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소생활권 설정 기준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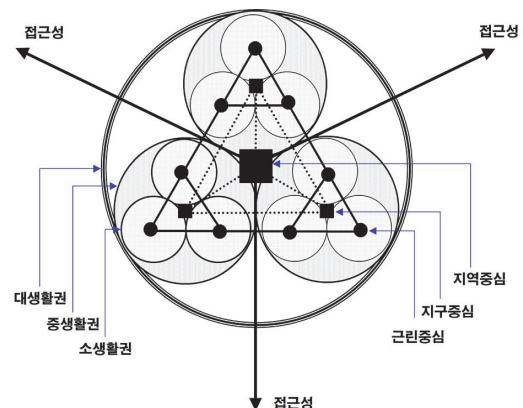
8장

2 생활권 설정기준

1. 생활권 위계별 설정기준 검토

- 생활권의 위계는 도시의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린생활권·소생활권·중생활권·대생활권의 4단계로 구분
 - 근린생활권 : 최하위 생활권 단위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권으로 주로 근린상가,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구분함

[그림 8-1] 생활권 개념도



04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 소생활권 : 행정동·리(里)외에 초·중학교의 학군을 기준으로 도로, 철도 등 물리적 요인과 아파트의 단지와 같은 지역적 특성, 시장 권역, 도매시장 등을 고려하여 구분함
- 중생활권 : 2~4개의 지구중심생활권과 고교 학군을 기준으로 산세, 하천 등의 자연적 환경과 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의도를 고려하여 구분함(대도시의 경우 인구 40~50만인 규모로 설정)
- 대생활권 : 2~4개의 중생활권을 포함하고 하천 등의 자연적 조건과 도로, 철도 등의 인문적 환경, 기간산업,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도심권 형성이 유도될 수 있도록 구분함(대도시의 경우 인구 80~100만인 규모로 설정)

[표 8-1] 위계별 생활권 구분 기준 검토

구분		설정기준	인구규모	고려사항	비고
근린생활권	근린분구	-	1천명 내외	· 근린상가 포함 · 어린이놀이터, 작업장 등 공유	-
	근린주구	2~4개의 근린분구	5천~1만인	· 유치원, 초등학교, 근린상가 포함 · 주요 도로 등에 의해 다른 지역과 구분	-
소생활권		행정동 기준	5만~10만인	·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학군 · 전통적 시장권역 및 지역적 특수성 · 지형적, 인위적 제약성	커뮤니티 (Community)
중생활권		2~4개 소생활권	40만인~50만인 내외	· 고등학교의 학군 · 시설배치기준 고려하되, 계획의도적 구분 · 산세, 하천 등 자연적 환경	지역 (Region)
대생활권		2~3개 중생활권	100만인 내외	· 자연적 조건(하천 등) 및 인문환경(도로, 철도 등) · 용도지역 등을 고려한 도심권 형성 유도	도시중심 (CBD)

2. 동일 생활권 설정의 근거

- 규모의 경제성 : 상호연계를 통한 규모의 경제가 높아질 수 있는 권역 설정
- 기능적 연계성 : 지역 간 연계성이 강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권역 설정
- 공간적 동질성 : 지리적 측면 및 사회·문화·역사·경제적 측면에서 동질적인 기반이 있는 지역들을 통합하여 권역 설정
- 지역 개발방향 : 지역 간 개발정도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여건을 중심으로 향후 지역개발 방향의 동질성을 고려하여 권역 설정

3. 생활권 설정요소 및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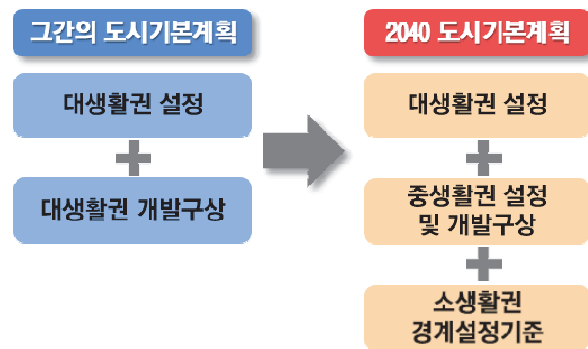
- 자연적 요소 : 지역 간 연계성과 공간적 동질성을 규정하는 요소로 지형, 지세, 수계 등
- 지리적 요소 : 규모의 경제성과 지역 간 연계성을 규정하는 요소로 행정구역, 인구규모, 공간단위 및 중심지간 도로거리 등
- 사회·문화적 요소 : 지역 간 연계성과 동질성을 규정하는 요소로 교통흐름, 생활편의시설의 분포 등
- 경제적 요소 : 지역 간 연계성과 동질성을 규정하는 요소로 산업구조, 물품구매활동 등

4. 부산의 여건을 고려한 위계별 생활권 설정 기준

가. 대도시 부산의 여건에 부합하는 생활권 기준 필요성

- 위계별 생활권 설정에 대한 여러 학술적, 경험적 기준은 대도시이며 다핵도시로서 국토공간 상 광역도시권의 중심성을 확보하여야할 부산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
- 부산의 자연환경적 요인, 인구활동 특성, 토지이용상의 제약사항, 지역 간 개발격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동질한 위계별 생활권을 설정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공간구조 개편의 방향성에 부합한 지역여건에 특화된 발전방향을 구상하기 위해 생활권 별 설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

[그림 8-2] 위계별 생활권에 대한 금회 도시기본계획의 방향



나. 부산의 여건을 고려한 위계별 생활권 설정 기준

1) 대생활권 설정기준

- 주요 산지, 하천 등의 자연적 조건을 기준으로 전통적 지역권 구분기준을 준용하여 고유하고 개별적인 개발특성과 여건을 갖는 지역동질권으로 설정
- 개발여건의 균형 배분을 고려 면적 평준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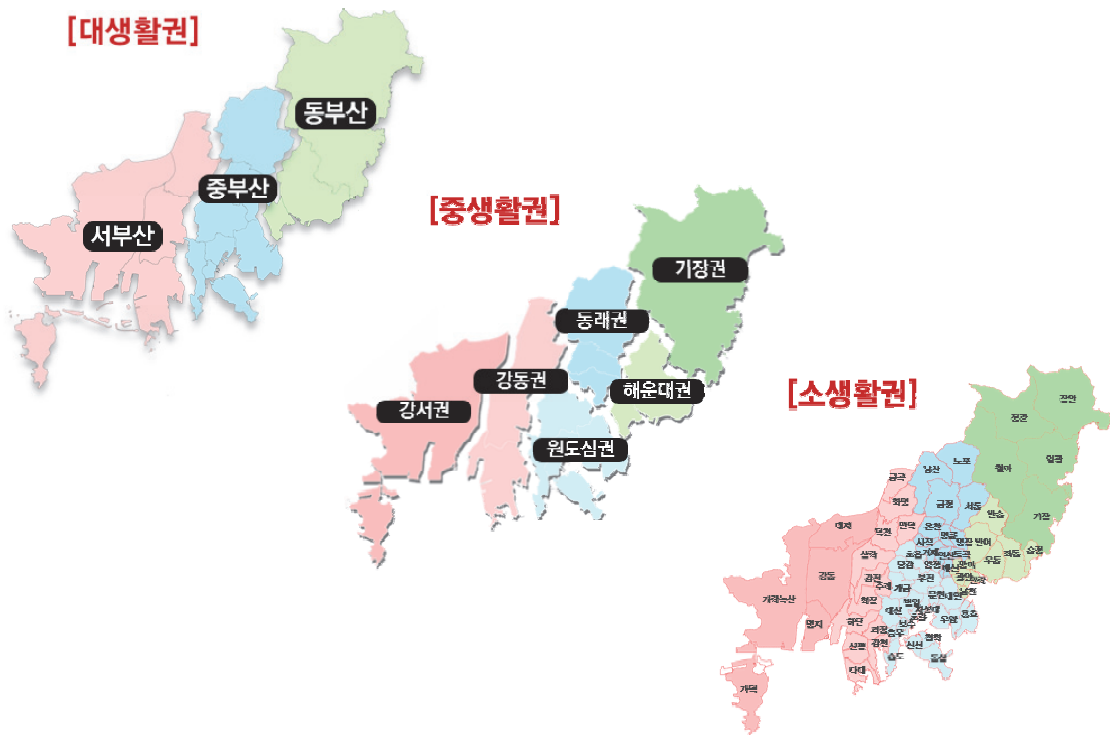
2) 중생활권 설정기준

- 도시기본계획 미래상에 대한 실행력 제고를 목적으로 2~4개의 지구중심생활권을 포함한 중규모의 지역동질권을 중생활권으로 설정
- 도시의 계획적 개발가능성과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고, 대생활권 개발여건의 균형배분을 감안하여 대생활권 별 동일 개수의 중생활권을 배분

3) 소생활권 설정기준

- 행정구역 경계, 초·중학교의 학군, 인구(5~10만인 기준), 도로, 철도 등 물리적 요인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분
- 도시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및 선행계획에서 설정한 주거생활권의 설정기준을 최대한 유지하여 정비사업 등 주택관련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설정
- 소생활권에 대한 세부적 계획내용은 향후 생활권 종합계획 시 경계설정 기준과 계획내용의 구체도 등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도록 계획방향 제시

[그림 8-3] 부산 여건에 부합한 위계별 생활권 설정 예시



3 생활권 설정

1. 대생활권 설정

가. 대생활권 설정

1) 대안 1 : 중심지 역량 균형배분

■ 대생활권 경계 설정 기준

- 기존도심 통합 개발 시너지효과 주변 지역 확산
- 지형적 특성과 도시활동에 의한 복합적 경계

■ 대안의 특징

- 중심권 활동인구 증가, 연계 인프라의 지속적 확장 전제
- 중부산권 과밀집중화 문제와 중심지 경쟁력 확보의 양면성 고려
- 지역특화사업을 통한 다양한 사업과 정비수법 적용 가능

■ 해당 구군

- 서부산권 :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 중부산권 : 금정구, 북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동구, 중구, 남구, 영도구
- 동부산권 :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그림 8-4] 대생활권 설정 대안 1



2) 대안 2 : 도시 균형발전 배분

■ 대생활권 경계 설정 기준

- 동서축 균형발전 도모, 다핵 분산형
- 지형적 특성과 생활권 규모 균형을 위한 경계

04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대안의 특징

- 인구의 균형배분, 상주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별 독립개발 전제
- 중부산의 과밀문제 해소와 동서 균형 발전 추구
- 인위적 생활권 배분으로 동질성 상실 우려

해당 구군

- 서부산권 :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중부산권 : 연제구, 부산진구, 수영구, 동구, 서구, 중구, 남구, 영도구
- 북부산권 : 금정구, 북구, 동래구
- 동부산권 : 해운대구, 기장군

[그림 8-5] 대생활권 설정 대안 2



3) 대안 3 : 도시용량 및 중심지 역량 절충배분

대생활권 경계 설정 기준

- 광역도시권의 중심성 강화, 생활권 평준화 고려
- 서부산권 계획 연속성을 고려하여 복합적 경계

대안의 특징

- 중심권 활동인구, 연계 인프라 지속적 확장을 전제
- 중부산권 과밀집중화와 중심지 경쟁력 확보 양면성
- 서부산, 동부산의 지역특화사업 고려로 차별화된 생활권계획 적용 가능

[그림 8-6] 대생활권 설정 대안 3



■ 해당 구·군

- 서부산권 : 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 중부산권 :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서구, 동구, 중구, 남구, 영도구
- 동부산권 :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4) 대생활권 설정 대안 선정

■ 도시용량 및 중심지 역량 절충배분(대안 3) 선정

- 광역도시권의 중심도시로서의 중심성 강화가 용이하고 생활권별 용량을 적절히 배분한 대안 3을 선정
- 본 대생활권 설정 대안은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대생활권 설정을 유지한 사항으로 지역 동질성 확보를 위한 계획의 연계성 확보 여부도 대안 평가 시 고려
 - 중심권 활동인구 증가와 인프라 확장 고려
 - 중부산권 과밀 집중 완화와 동시에 경쟁력 유지
 - 서부산권, 동부산권 지역특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생활권 별 역량 확보 가능

나. 대생활권 발전방향 설정

1) 서부산권 발전방향 : 공항복합도시 및 신산업 혁신의 허브

■ 글로벌 공항복합도시 허브기능 강화

- 공항복합도시 조성과 국제산업물류도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 낙동강 유역 친환경 개발과 스마트 산업벨트의 광역적 연계

2) 중부산권 발전방향 : 초광역 경제권의 비즈니스 허브

■ 그랜드 경제권 비즈니스 중추기능 강화

- 행정·금융·언론의 중추기능 담당
- 문현 혁신도시 중심 도심 금융, 부산항 일원 해양산업 개발로 금융·무역 거점지역으로 육성

04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3) 동부산권 발전방향 : 글로벌 MICE 허브

■ 국제 컨벤션, 관광, 신성장산업 거점기능 강화

- 영화·영상, 컨벤션의 신성장동력 기반 조성
- 국제 해양 관광·레저·휴양, 의료산업의 특화 조성
- 에너지, 녹색산업 클러스터 육성

[그림 8-7] 대생활권 설정 개요



	서부산	중부산	동부산	계
면적 (%)	298.72km ² (38.8)	191.37km ² (24.8)	279.98km ² (36.4)	770.07km ² (100.0)
인구 (%)	978천인 (28.2)	1,732천인 (50.0)	756천인 (21.8)	3,466천인 (100.0)
해당구군	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서구, 동구, 남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기장군 수영구	-

2. 중생활권 설정

가. 중생활권 설정 내용

- 중생활권 설정기준에 따라 각 대생활권 별로 2개씩의 중생활권 배정
- 설정된 각 중생활권 별로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을 발휘한 지역균형개발이 달성 되도록 입지 및 개발여건에 따른 특징적인 발전구상을 제시

[표 8-2] 중생활권 설정 내용

대생활권	중생활권	면적	구군
계		770.07	
서부산	강서권	181.49	강서구
	강동권	117.23	북구, 사상구, 사하구
중부산	동래권	94.00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원도심권	97.37	부산진구, 서구, 동구, 남구, 중구, 영도구
동부산	기장권	218.30	기장군
	해운대권	61.68	해운대구, 수영구

나. 중생활권 별 핵심 발전구상

1) 서부산 대생활권 내 중생활권(강서권, 강동권)

■ 강서 중생활권

- 가덕도신공항, 김해공항, 에코델타시티 중심의 광역권 전초기지 위상 제고
- Tri-Port(항공+항만+철도) 연계 산업 및 R&D 4차 산업 핵심공간 구축

■ 강동 중생활권

- 재생사업 및 도시정비 사업 추진, 기반시설 및 생활SOC 확충
- 사상스마트-혁신산단-이전적지 재활성화로 창업/벤처공간 확보

2) 중부산 대생활권 내 중생활권(원도심권, 동래권)

■ 원도심 중생활권

- 원도심 활성화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등 국제교류와 비즈니스, 금융의 거점공간 조성
- 해양신산업-해양R&D-해양문화의 구축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

04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동래 중생활권

- 도심 기능 활성화 및 지역거점 역세권별 다기능 복합용도 개발 추진
- 금사공업지역 산업기능 전환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지역 내 수려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의 연계와 확산

3) 동부산 대생활권 내 중생활권(해운대권, 기장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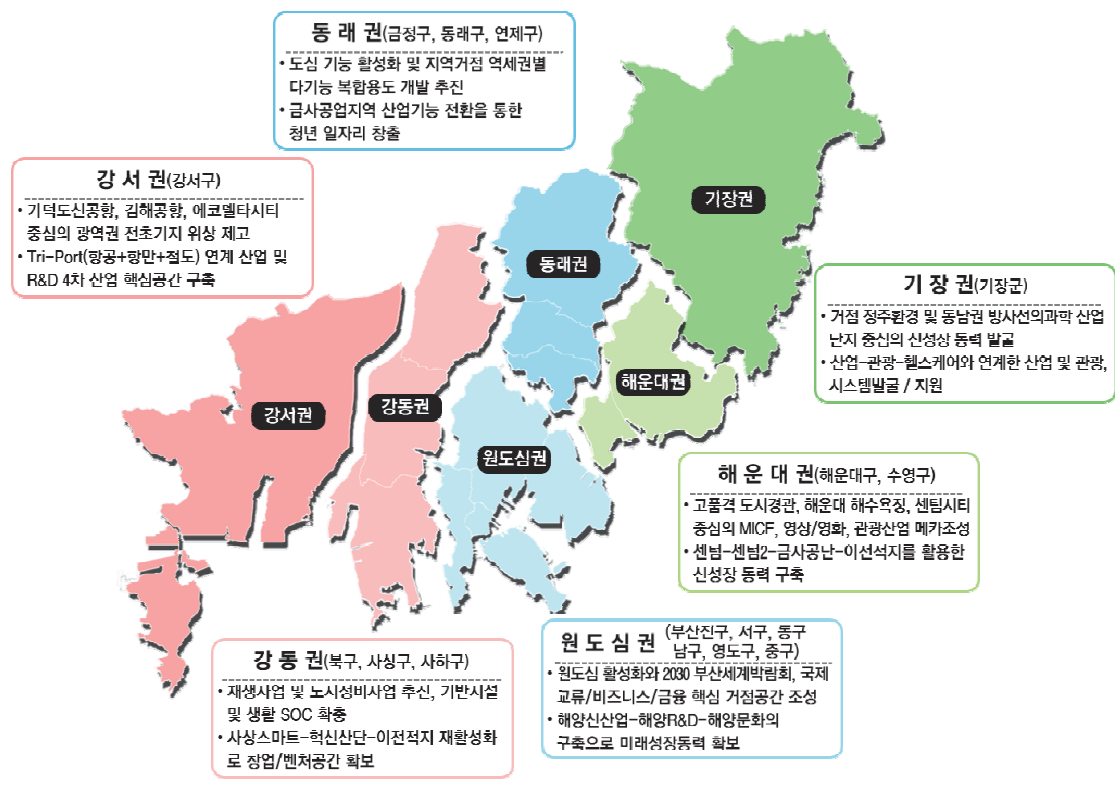
해운대 중생활권

- 고품격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해운대해수욕장, 센텀시티 중심의 MICE, 영상/영화, 관광산업 메카조성
- 센텀-센텀2-금사공단-이전적지를 활용한 신성장 동력 구축

기장 중생활권

- 거점 정주환경 및 동남권 방사선의과학 산업단지 중심의 신성장 동력 발굴
- 산업-관광-헬스케어와 연계한 산업 및 관광시스템 발굴 및 지원

[그림 8-8] 중생활권 별 핵심 발전구상



3. 소생활권 설정

가. 소생활권 설정의 기본방향

- 소생활권에 대한 세부적 계획내용은 향후 생활권 종합계획 시 경계설정 기준과 계획내용의 구체도 등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도록 설정의 기본방향을 제시
- 세부적인 소생활권 계획은 이후의 생활권계획이나 생활보행권(15분도시)계획 등에서 각 생활권 설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소생활권의 여건과 특성에 따른 합리적 계획 도모

나. 소생활권 설정기준 및 관련 계획의 주요 내용

■ 소생활권의 정의

- 대생활권과 중생활권의 하위개념으로 행정구역, 인구현황, 주요 기반시설의 입지에 따라 주거특성, 토지이용특성, 생활환경이나 경제적 특성 등에서 동질성을 가지는 일단의 공간적 범위를 소생활권으로 정의
- 구체적인 소생활권의 경계는 향후 생활권계획이나 「15분 도시 부산 생활보행권계획 가이드라인」(2022.07, 부산광역시)에 의한 생활보행권 계획 등에 의해 별도로 설정

■ 소생활권계획과 생활보행권계획 간의 관계

- 소생활권은 「15분 도시 부산 생활보행권계획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생활권 진단 및 생활권 평가 등에 따라 설정되는 계획단위이며, 소생활권에 대한 생활권계획은 개별 생활권의 특성과 시급성 등 필요에 따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된 계획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지침이 되는 중간 단계의 계획
- 생활보행권계획은 소생활권 내에서 보행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편의시설로의 접근 및 이웃과의 일상생활이 밀접한 관계를 맺는 활동영역으로 도보 15분 단위로 구성된 보행권으로 하나의 소생활권 내 여러 개의 생활보행권이 구성될 수 있고, 「15분 도시 부산 생활보행권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15분 도시를 실현하는 실행계획

■ 생활권 진단 및 평가의 내용

- 주거환경과 입지에 대한 생활권 특성 분석, 거주/활동인구의 대한 인구특성분석, 생활 SOC시설의 공급과 이용 등에 대한 생활권 시설 분석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생활보행권계획을 통한 소생활권계획의 실행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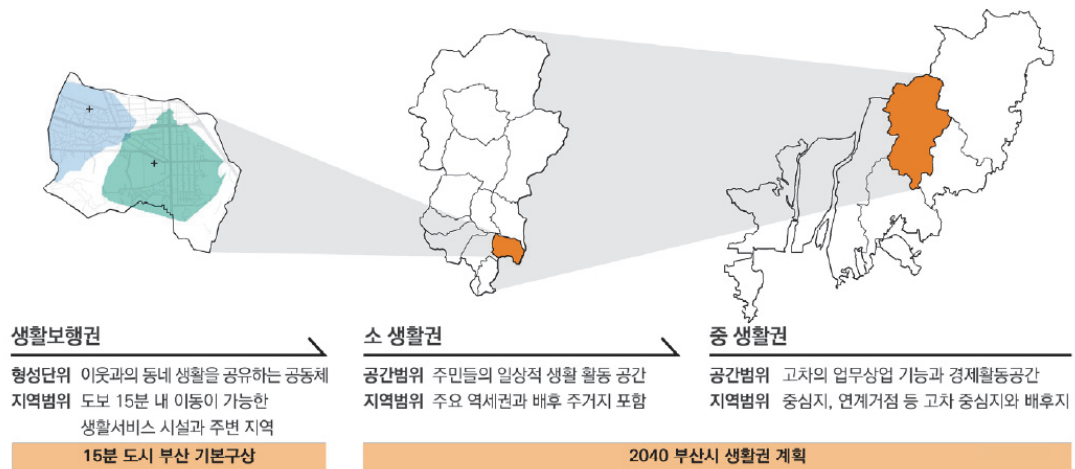
- 「15분 도시 부산 생활보행권계획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생활보행권계획은 보행 및 이웃과의 관계 중심의 삶터로 조성하기 위한 실천계획으로 추후 소생활권에 대한 지침 계획 수립 시 생활보행권 계획의 주요 사항들을 제도화하고 종합적인 생활권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생활보행권계획을 통해 생활권 단위 발전구상(공간관리, 지역경제, 교통, 주거환경, 경관 환경, 문화복지 분야)과 공간계획(공간구조, 중심지, 용도지역, 구역경관, 생활서비스시설) 등 구체화 및 실행 방안이 도시계획 안에서 정착되어 지속적인 실행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 필요

[표 8-3] 소생활권계획과 생활보행권 계획과의 관계

구분	생활권계획	생활보행권계획
목적	· 도시기본계획을 생활권 별로 구체화 하여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는 중간 단계 계획	· 생활밀착의 동네 생활을 위한 계획으로 프로그램과 공동체 중심의 삶터 조성을 위한 실천계획
생활권 명칭	· 중생활권, 소생활권	· 생활보행권
범위	<중생활권> · 고차의 업무상업 기능과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범위로, 도심·부도심 등 고차중심지와 배후지를 포함하는 지역 <소생활권> ·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범위	· 보행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편의 시설로의 접근 및 이웃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맺는 활동단위
주요내용	· 주요 역세권의 육성 및 관리방향 · 주거지 특성 유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방향 · 생활가로체계 및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방향, 지구교통 개선방향 · 기초생활서비스시설의 확충, 미이용·저이용 공공시설 및 이전지지의 활용방향 · 지역명소 발굴 및 특화방향, 지역밀착형 산업 기반 육성, 지역공동체 육성방향 · 용도지역·지구의 재정비, 지역별 밀도와 건축물높이 등의 차등 적용 등 도시관리계획 조성 방향	· 보행 및 인구특성을 고려한 생활서비스 시설 재편 · 15분 도시 부산 매개 프로그램 운영 및 중점 추진사업의 시행 · 주민 자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실천 프로그램 운영
	· 지침적 성격	· 실행적 성격

※ 15분 도시 부산 생활보행권계획 가이드라인, 2022.07, 부산광역시

[그림 8-9] 생활권계획과 생활보행권 계획의 위계와 범위



※ 15분 도시 부산 생활보행권계획 가이드라인, 2022.07, 부산광역시

라. 생활권 진단을 위한 주요 검토내용

■ 기본방향

- 생활권 진단은 생활권의 생활 여건 및 사회, 커뮤니티 측면의 전반적인 여건을 진단하고, 향후 생활보행권 설정 및 계획 방향 수립에 있어 생활권 특성의 기초자료로 활용
- 금회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향후 개별 생활권 설정이나 생활권계획의 지침이 되도록 「15분 도시 부산 생활보행권계획 가이드라인」 상의 생활권 진단 주요 검토내용을 제시 하되 각 생활권의 특성에 따라 검토내용과 항목을 적절히 가감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 하여 여건에 부합하고 특색 있는 생활권계획 유도

■ 정주환경

- 정주환경은 주거환경, 생활여건, 사회안전, 경제활력, 커뮤니티의 세부항목으로 구성
- 정주환경은 부산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의 주거환경지표분석 항목을 근거로 분석
- 분석된 지표를 통해 생활권의 기초여건 및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정주환경의 세부 분야를 도출

04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 입지특성

- 입지특성은 생활권 부산의 산수 환경 및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수변(바다, 강, 하천) 및 산지(녹지) 등 자연환경과 경사(평지, 경사) 특성을 도출

■ 인구특성

- 인구특성은 인구수, 연령, 세대수, 가구당 인구수 등 거주인구와 종사자수, 주간인구, 직장인구 등 활동 인구의 분석을 통해 생활권 내 인구특성을 도출
- 인구의 구성은 생활권 내 필요한 생활서비스의 용도 및 위치,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

■ 생활서비스시설

- 생활서비스시설은 생활권 내 현재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시설로 충족 여부와 접근 정도, 위치 및 기능, 프로그램 이용 정도를 분석
- 생활권 내 인구특성을 고려한 생활서비스시설 재배치 및 기능 전환, 신규 공급 등 공급 방향 수립을 위한 활용 관점 조사 시행

■ 제3의 공간

- 제3의 공간인 공개공지, 공동주택 외부공간 등 민간영역과 공공시설의 저활용되고 있는 유휴 공간의 활용 현황을 분석
- 공개공지 등 제3의 공간은 부산시 공개공지 관리대장, 부산시 공공시설 현황 등을 기준으로 위치, 면적, 활용 주체 등을 분석하고, 실제 현장 관찰조사(UX)를 통해 공간의 활용, 이용행태 등 이용현황을 분석

■ 공동체

- 공동체는 생활권 내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풀뿌리 공동체의 유무, 활용 영역, 활동 내용, 활동 인원, 거점 공간 등 활동 전반에 관한 분석을 진행
- 공동주택 공동체, 교육, 돌봄, 일자리,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주민 공동체로 확대 하여 생활권 내 주민들의 생활에서 주된 관심사를 도출
- 탄소중립, 에너지 절약 등 생활권 내 실천 프로그램으로의 확대 가능한 운영 역량 진단

4 중생활권별 발전구상

1. 강서 중생활권 발전구상

■ 공간구조상 특징

- 2 중심지 + 1 연계거점 포함
- 다수의 국가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주요 개발축 연계 및 확장 가능
 - 광역경제 중심지 설정 : 강서 (주거+경제)
 - 가덕도신공항 중심지 설정 : 신공항 (교통+물류)
 - 접경지역 연계거점 설정 : 대저(김해접경)

■ 발전전략

- 가덕도신공항, 김해공항 중심의 공항복합도시 조성
- 에코델타시티 중심의 공항 및 물류 배후단지 조성
- 낙동강과 해안을 연계한 생태, 치유, 체험공간 조성

■ 실천전략

- Tri-Port를 연계한 미래 신성장 산업생태계 구축
- 에코델타시티, 명지국제도시 지속 및 제2에코델타시티, 맥도그린시티 등 신규 추진
- 낙동강 친수공간과 연안을 활용한 국제관광레저벨트축 완성

■ 분야별 실천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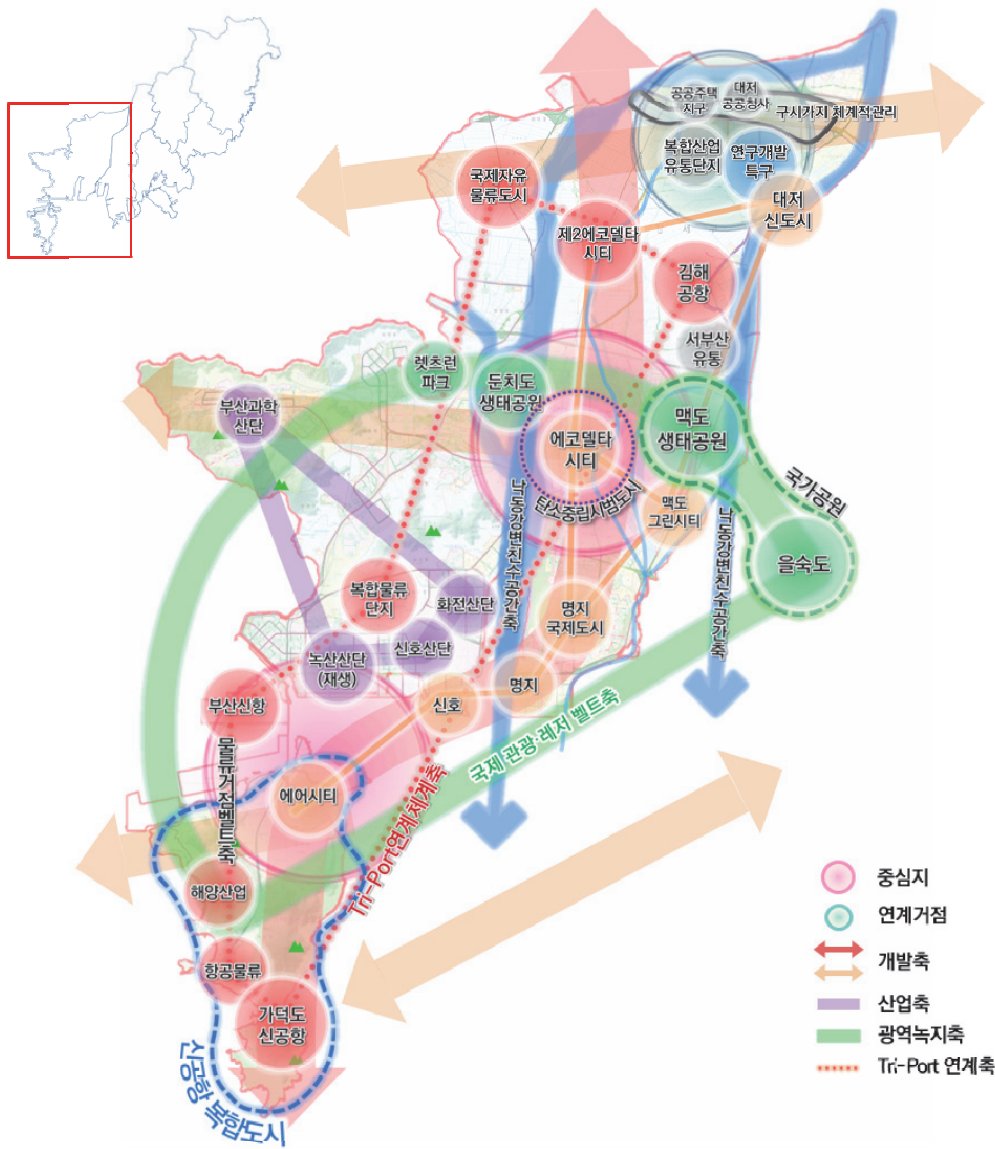
산업 /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i-Port를 연계한 미래 신성장 산업생태계 구축 · 물류거점벨트 구축을 통한 글로벌 물류플랫폼 조성 ·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신성장(R&D) 동력 확보 · 녹산국가산단 중심의 구조고도화, 혁신산단 조성
주거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코델타시티, 명지국제도시 활성화 및 제2에코델타시티 신규 추진 · 에어시티, 맥도그린시티 등 공항배후주거단지 조성 · 대저신도시 조성과 연계한 구시가지 체계적 관리 도모 · 역세권, 이전적지, 공유지/유휴지, 노후공장 복합용도 조성
문화 /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덕도신공항과 연계한 국제휴양관광 및 복합 에어시티 조성 · 을숙도-맥도-둔치도-가덕-북항-해운대 국제관광레저축 조성 · 낙동강 친수환경을 활용한 국가공원, 국가정원 조성 · 남해안관광벨트와 연계한 습지, 연안, 수계 관광상품화

04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교통 / 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i-Port 연계한 광역교통(공항+항만+철도) 네트워크 구축 · 가덕도신공항 중심 미래교통(UAM, BuTX 등) 시스템 구축 · 낙동강 수계와 연계한 둘레길, 보행 및 자전거길 조성 · 연안과 낙동강 수계를 활용한 해상교통 시스템 구축
환경 /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 갯벌, 연안, 습지 등 탄소흡수 가능 강화 · 공항배후단지, 스마트 그린도시, 탄소중립 시범도시 조성 · 철도, 도시철도, 도로 등 단절된 주변지역 경관개선방안 마련 · 낙동강 하구 생태계 복원 및 철새도래지 보존

강서권 발전구상도

[그림 8-10] 강서 중생활권 발전구상도



2. 강동 중생활권 발전구상

■ 공간구조상 특징

- 3 중심지 + 1 연계거점
- 산업 재생과 지역활력을 위한 중심지와 발전축의 연계
 - 지역거점 핵심 역세권 설정 : 덕천, 사상, 하단 중심지
 - 항만~공항을 잇는 해안 발전축 : 다대 (신공항)연계거점

■ 발전전략

- 노후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추진
- 노후 주거지 정주환경(정비사업, 재생) 개선
- 동측 산지와 서측 수변을 연계한 치유 및 체험공간 확보

■ 실천전략

- 사상스마트 재생산단과 주변 산업기반을 연계한 청년일자리 창출
-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순차적 주거정비
- 사상역세권 복합환승기능 구축 및 연계 대중교통체계 완비

■ 분야별 실천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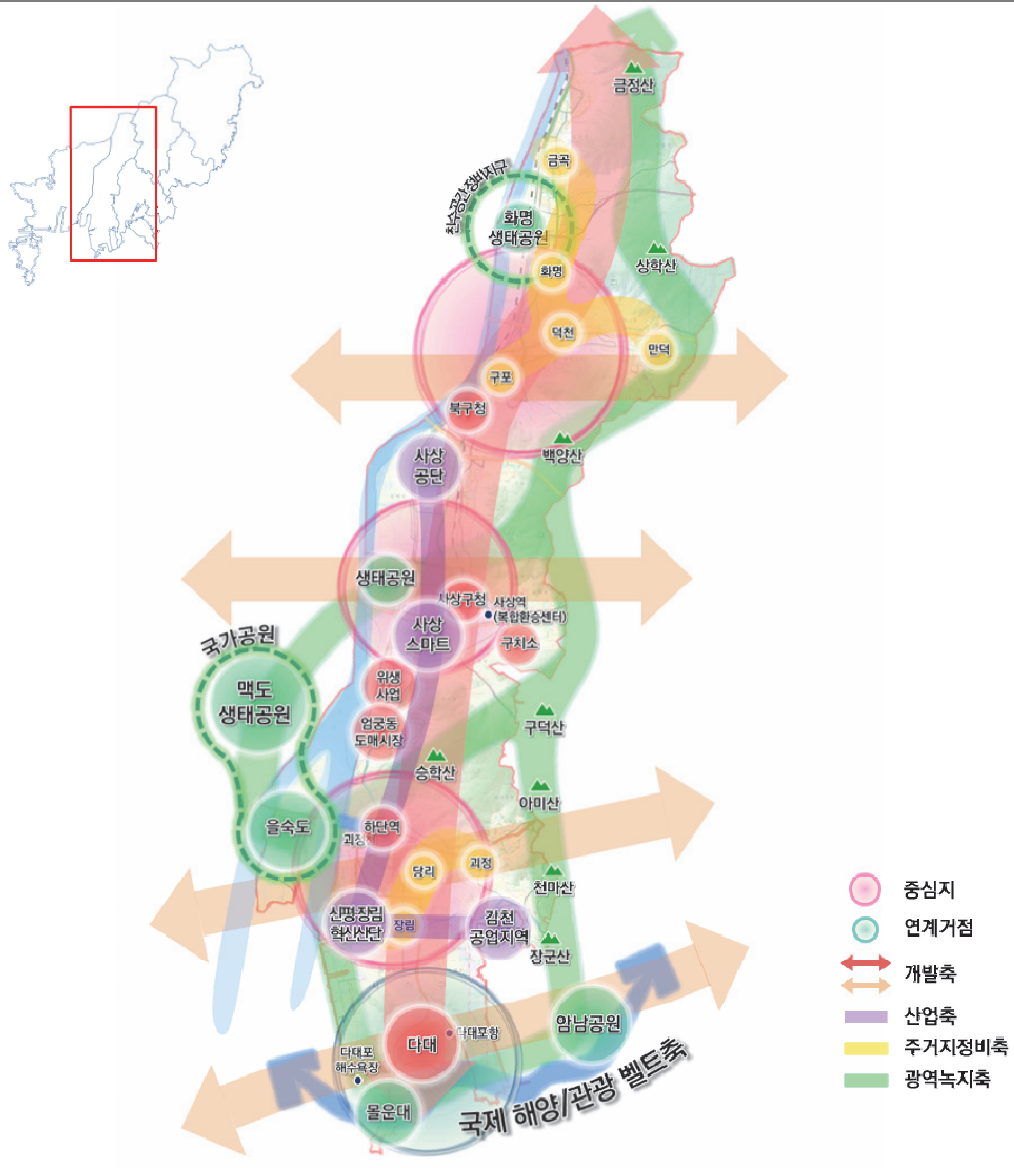
산업 /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스마트 산업단지 적극적 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 신평/장림 혁신산업단지로 기능 재편 및 업종 전환 · 구) 한진중공업 / 엄궁도매시장 / 위생사업소 / 구치소 복합용도 개발 · 역세권 복합개발로 상업/업무/창업/문화/복지기능 강화
주거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순차적 사업 추진 · 역세권, 이전적지, 공유지 등 복합용도내 공공임대주택 확보 · 역세권 주변 노후 공장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주거기능 확보 · 정비사업, 복합용도 개발 시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보
문화 /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정산-백양산-구덕산 남북축에 치유 및 체험공간 확보 · 을숙도 낙동강 수계와 연계한 국제 생태공원 조성 · 맥도-을숙도-물운대-암남공원 관광 연계축 강화 ·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거점 구축

04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교통 / 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역세권 복합환승기능 구축 · 사상 - 하단선, 하단 - 녹산선과 연계한 대중교통 연계 추진 · 남북 산악축, 하천축을 연계하는 동서축 보행/자전거길 추진 · 낙동강 하류부 중심 동서남북축 해상교통체계 구축
환경 /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재생 시 스마트 그린시스템 구축 · 치유 / 체험축과 연계한 트라우마 치유 복합공간 확보 · 과정천을 주민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동서축 연계 강화 · 남북으로 나란한 낙동강과 산림축을 휴양과 여가, 보전과 이용의 복합공간화

강동권 발전구상도

[그림 8-11] 강동 중생활권 발전구상도



3. 원도심 중생활권 발전구상

■ 공간구조상 특징

- 2 중심지 + 1 연계거점
- 도시중심성과 광역중심성을 동시 확보하는 공간구조
 - 광역경제 중심지 설정 : 서면, 중앙 중심지
 - 신공항~해양 연계거점 설정 : 동삼 연계거점

■ 발전전략

- 중앙, 서면 중심의 금융, 업무의 국제교류기능 강화
- 문현혁신지구 중심의 국제금융 클러스터 구축
- 북항재개발과 연계한 원도심 재활성화 도모
- 원도심 도심융합특구 및 부전역 거점개발

■ 실천전략

- 동남권 광역중심성 확보를 위한 금융, 업무,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 북항재개발, 2030 부산세계박람회, 경부선지하화 등을 활용한 도심 교통체계 혁신
- 주거지 정비, 역세권 및 이전적지 복합개발 등의 새로운 주거공급 모델
-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기점으로 글로벌 문화허브 위상 확보

■ 분야별 실천방향

산업 /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현~북항 핀테크/블록체인 글로벌 해양금융 플랫폼 조성 · 감만~영도~동삼혁신과 연계한 해양 R&D/신산업 구축 · 철도시설 재배치를 통한 복합기능 및 혁신지구 조성 · 부산주력 수산업과 연계한 감만 해양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주거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망권을 고려한 정비사업(부산형 신주거모델) 단계 추진 · 해양 신산업조성 시 직주근접을 고려한 주거기능 도입 · 역세권, 이전적지, 유휴지 등 복합용도 내 청년주거기능 도입 · 원도심 도시재생을 통한 정주환경 정비와 생활SOC 확보로 도심기능 회복
문화 /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로 국제 문화거점으로 구축 · 항만, 구릉지 등 지역자원 문화기능 강화를 통한 관광상품화 · 동래권에서 연계되는 역사문화공존축의 인구활동을 화지공원~시민공원~부전역으로 확산 · 55보급창~동천과 연계한 새로운 산업/문화/관광 생태계 조성

04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교통 / 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부선 지하화를 통한 경관개선 및 주민휴식공간 조성 북항과 연계한 신교통수단(트램, C-Bay Park 선) 네트워크 구축 원도심의 바다와 산이 연계되는 조망축, 보행축, 상징축 조성 북항중심의 국제여객 및 해상교통 시스템 구축
환경 /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 및 연안 도시개발 시 선형의 친수공간 및 녹지대 조성 철도, 도시철도, 도로 등 단절된 주변지역 경관개선방안 마련 이기대, 태종대 등 연안 체계적 관리로 시민의 품으로 조성 디지털 산업 생태계 조성과 친환경 도시기반 조성으로 도시회복력 확보

■ 원도심권 발전구상도

[그림 8-12] 원도심 중생활권 발전구상도



4. 동래 중생활권 발전구상

■ 공간구조상 특징

- 1 중심지 + 1 연계거점
- 전통적 행정중심지 역할 강화 및 부산 관문거점 공간정비
 - 지역거점 역세권 설정 : 동래 중심지
 - 접경지역 연계거점 설정 : 노포 연계거점

■ 발전전략

- 금사공업지역의 도심 친화형 산업으로 기능 전환 유도
- 노후 주택지의 체계적 주거정비 및 공공재생기능 강화
- 회동수원지와 금정산의 녹지축과 지역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의 연계와 확산

■ 실천전략

- 노후공업지역 재생 및 고도화, 신규 산업기반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혁신거점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주거지 정비, 역세권 복합개발, 상수원보호구역 정비로 충분한 주택 공급
- 노포 복합환승센터 추진과 역세권 중심 대중교통체계 혁신

■ 분야별 실천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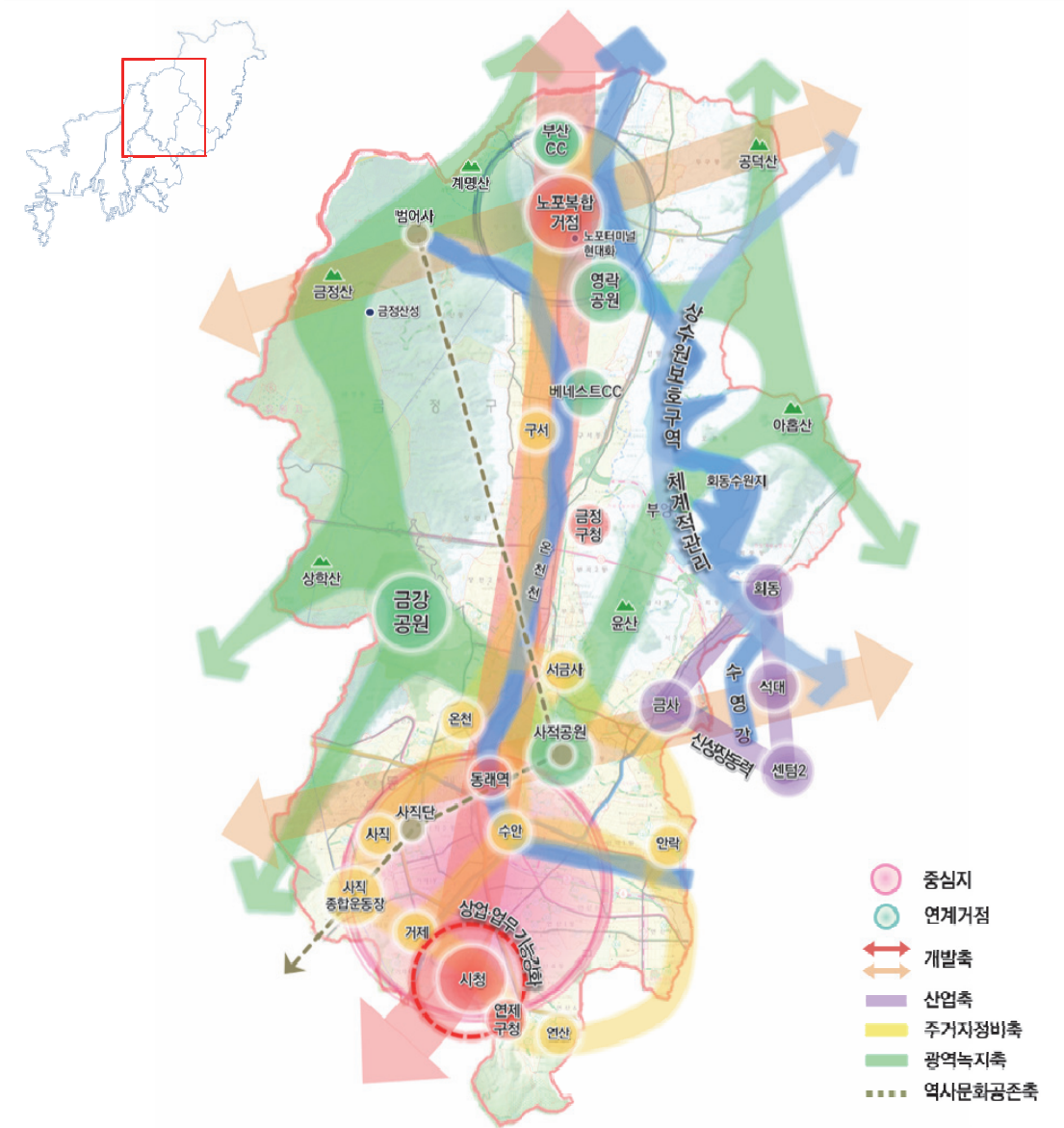
산업 /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사공업지역 업종전환, 구조고도화 등 혁신거점 마련 · 금사~센텀2~석대~회동산단과 연계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 · 역세권별 복합용도 개발을 통한 청년 창업기능 지원 강화 · 대학~산단~공공기관 등 산학연 연계 네트워크 구축 강화
주거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지역 신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구 유출 방지 · 역세권 주변 노후 주택단지 재개발, 재건축, 재생사업 추진 · 상수원 보호구역 저강도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 공업지역 재생,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로 청년 주거기능 고려
문화 /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시민이 누리도록 역사문화공존축(범어사~사적공원~사직동) 활성화 · 사직종합운동장 재활성화를 통한 문화/관광 거점 구축 · 상수원보호구역 관광자원화 및 치유 및 체험공간 조성 · 금정산축~공덕산축과 연계한 동서축 연계 특화거리 조성

04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교통 / 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포터미널 복합개발(복합환승센터)로 현대화 추진 · 도심지내 역세권 중심의 대중교통중심 체계로 전환 고려 · 역세권으로 연계할 수 있는 보행 및 자전거도로 추진 · 광역녹지축과 연계한 둘레길, 갈매길 등 조성
환경 /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녹지축 선택과 집중을 통한 보존으로 도시회복력 고려 · 부산CC 등 지역 내 골프장 광역녹지축 연계 강화 · 회동저수지, 수영강, 온천천 친수환경 및 생태하천 조성 ·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안전한 상수원 확보

동래권 발전구상도

[그림 8-13] 동래 중생활권 발전구상도



5. 해운대 중생활권 발전구상

■ 공간구조상 특징

- 1 중심지
- 광역경제거점 기능 강화를 위한 연계형 공간구조
 - 광역경제거점 설정 : 해운대 중심지

■ 발전전략

- MICE 관련 산업 연계 및 국제관광도시 조성
- 센텀2 도시첨단산단 중심의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
- 해운대 중심의 국제해양/관광벨트 구축

■ 실천전략

- 기존 영상문화 기반을 활용한 영상문화 및 MICE 산업 강화
- 센텀~센텀2~기존산업기반을 연계한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 노후주택지 정비, 신규 복합개발을 통한 청년주거 특화 공급
- 광안리~해운대~오시리아 관광축을 기장권으로 확장

■ 분야별 실천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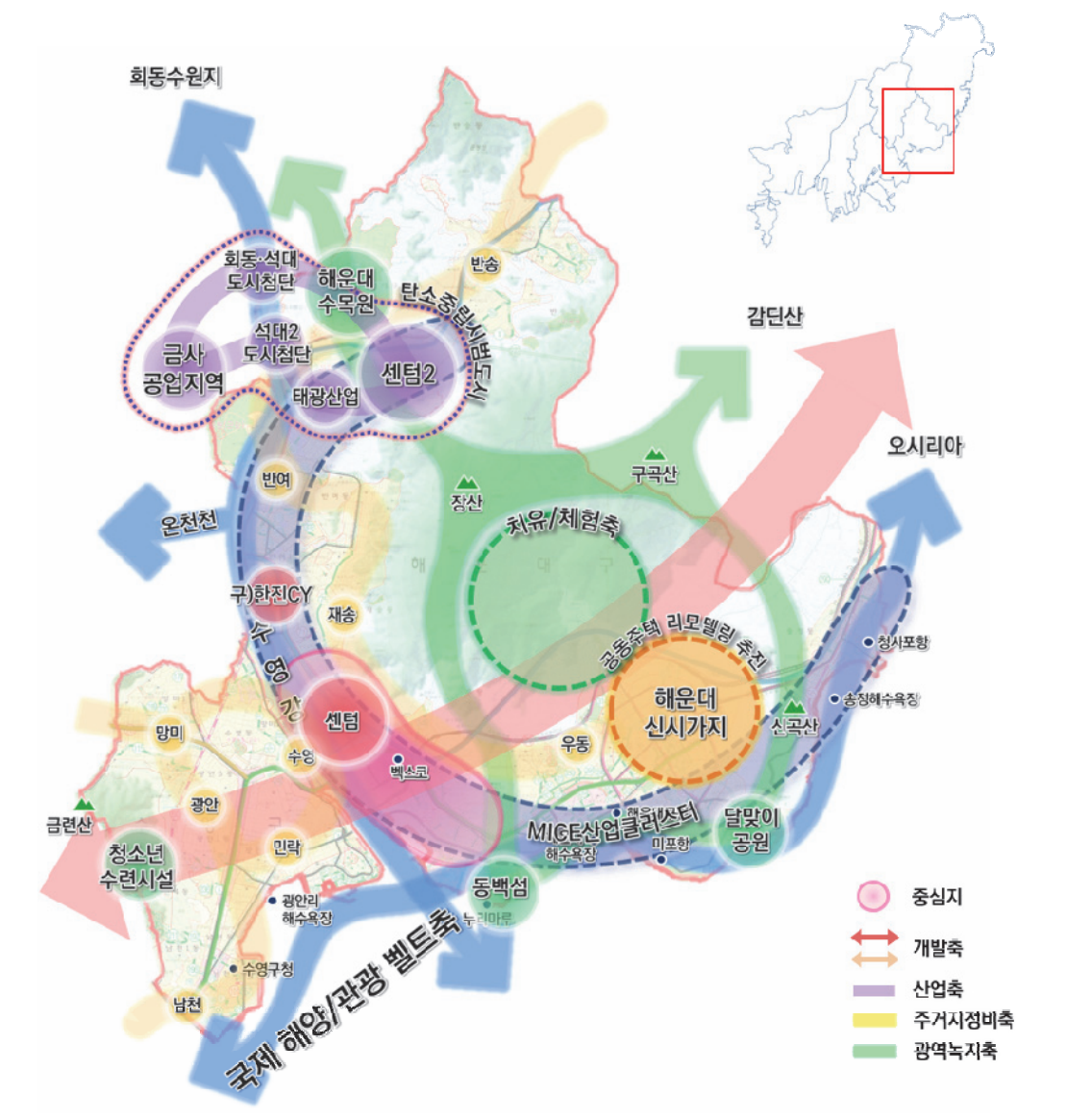
산업 /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텀 - 센텀2와 연계한 미래형 신성장산업 구축 · 벡스코와 연계한 영상문화, MICE 관련 산업 육성 · 구한진CY, 태광산업 이전지 청년 창업/벤처기능 활성화 · 글로벌 해양관광 복합지구 조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텀2 도시첨단, 이전지 개발 시 직주근접의 주거기능 도입 · 노후 주택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 단계추진 · 노후 공동주택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 · 역세권 주변 콤팩트 복합개발로 청년 주거환경 조성
문화 /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안리-해운대-오시리아로 연계되는 국제관광도시 조성 · MICE 산업과 연계한 영화, 영상산업 거점도시로 조성 · MICE, 영상/영화관련 산업 이벤트 및 축제 등 발굴, 지원 · 가덕도신공항-북항-해운대로 연결되는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전략 모색

04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교통 / 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텀2-센텀-해운대-오시리아 관광단지 연계 MICE 로드 조성 · 광안리-동백섬-해운대-달맞이공원축으로 관광 갈맷길 조성 · 해운대 중심의 신교통수단 및 해상교통 시스템 구축 · 수영강 친환경 하천과 연계한 동서축 보행 및 자전거 구축
환경 /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 및 수변공간을 시민 이용공간으로 환원 · 해운대 수목원 1,2단계 치유 힐링숲 조성 · 철도, 도시철도, 도로 등 단절된 주변지역 경관개선방안 마련 · 시민이용 해변 수변공간 창출과 연계한 선형의 녹지공간 확보

■ 해운대권 발전구상도

[그림 8-14] 해운대 중생활권 발전구상도



6. 기장 중생활권 발전구상

■ 공간구조상 특징

- 1 중심지 + 1 연계거점
- 기존 연안 개발축과 내부 거점을 연결하는 공간구조
 - 지역거점 중심지 설정 : 기장 중심지
 - 주거 및 산업중심 지역특화 거점설정 : 장안 연계거점

■ 발전전략

- 의료산업, 자연자원 등과 연계한 의료, 휴양도시 조성
-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단지 중심의 신성장동력 확보
-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연계한 친환경 해양관광도시 조성

■ 실천전략

- 의과학단지, 파워반도체 등 신성장 특화산업 클러스터 구축
- 의료, 요양, 휴양, 관광의 연계로 차별화된 힐링헬스투어 기반 마련
-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기점으로 국제해양/관광벨트 조성
- 저밀도 친환경 주택단지 공급과 주거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 분야별 실천방향

산업 /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단지 파워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 에너지 / 녹색산업 클러스터 구축 · 개발가능지를 활용한 신규 산단 및 도시첨단산단 조성 · 실버산업, 헬스케어, 관광 등을 통한 전 세대 일자리 창출
주거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세권 및 개발가능지를 활용한 실버타운, 임대주택 등 조성 · 기장도심 및 연안변 노후 주택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 · 철도 및 도시철도 역사 주변, 이전적지, 유휴지 등 복합용도 개발로 주거기능 도입 · 접경지주변지역 신규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주환경 조성
문화 /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시리아 관광단지 거점개발을 통한 국제해양/관광벨트화 · 일광, 이동, 대변향 등 연안의 체계적 관리로 관광 상품화 · 의료, 요양도시와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차별화 전략 모색 · 조성되는 천리 갈맷길 상의 거점 문화명소와 관광지를 루트화한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육성

04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교통 / 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선과 연계하는 도시철도(정관선, 기장선) 단계별 구축 · 역세권중심의 대중교통 및 보행, 자전거도로 연계 구축 · 기장도예촌, 용공사, 연안과 연계한 갈맷길 조성 · 오시리아 관광단지 중심의 신교통수단 및 해상교통 시스템 구축
환경 /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상 절대보전지역의 자연자원을 보전·활용한 치유/체험공간 조성 · 해운대비치등 기장군 관내 골프장 광역녹지축 연계 강화 · 신재생에너지 발굴/친환경에너지 산업연계로 탄소중립 고려 · 트라우마 치유복합공간 확보 및 의료, 요양도시와 연계 강화

기장권 발전구상도

[그림 8-15] 기장 중생활권 발전구상도

